

OBLIGE CLUB MAGAZINE

오블리제 클럽 매거진

MAY-JUN 2018





'오블리제 클럽'은
고객의 성공적인 자산 운용과
평안한 노후를 위한
미래에셋의
VIP 서비스 브랜드입니다.



사하WM 서진승 고객 作

응모 사연

가정의 달 기념 자유 작품 공모전 참여를 위해 개구쟁이 손자를 그렸습니다.
가장 편한 자세로 있어달라고 부탁하니 이 자세가 가장 편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림을 완성하기도 전에 그대로 엎드려 자버리는 개구쟁이 우리 손자,
귀엽고 소중한 보물입니다.

스페셜

상상이 꽃피는 건축

- 06 I. 상상을 구현한 21세기 창조적 건축
- 12 II. 자연에 바치는 인간의 찬사
- 16 III. 일상 속 멋진 건축물



별책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자산 배분
모델 포트폴리오

프리미엄 라이프

- 20 **Season** 자연에서 찾은 건강한 식탁
- 24 **Travel** 싱그러운 위로^{慰勞}, 태국 치앙마이
- 28 **Heritage** 한국 전통 가구에 깃든 옛 생활문화, 한국가구박물관
- 32 **Futurology** 디지털 기술이 바꿀놓을 미래 대학 교육
- 36 **Heyday** 안녕히 주무셨어요? 만성 불면증 극복
- 38 **Healthy Day** 알고 마시면 술도 보약
- 40 **Recommend** 출판인 김언호가 권하는 책, <뜻으로 본 한국역사>
- 42 **Review** 아주 오래된 공포, <프랑켄슈타인>

글로벌 자산 관리

- 46 **은퇴 설계**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한 네 기둥
- 50 **글로벌 이슈/테마** 핀테크^{fintech}, 금융 서비스를 재편하다
- 54 **글로벌 플랫폼 기업** 우리 텐센트가 달라졌어요
- 58 **국내 이슈/테마** 경기 순환 산업의 사이클, 공급 부족이 주는 기회
- 62 **핫 상품**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투자 기회

어드바이저리

- 68 **절세 가이드** 은퇴 후 퇴직금 운용,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
- 70 **부동산 가이드** 규제에 막힌 재건축 투자, 리모델링으로 선회할까?
- 72 **법률 클리닉** 동의 없는 녹음, 어디까지 허용될까?
- 74 **WM NEWS**

VIP 고객 참여 공간

- 76 **‘가정의 달 기념’ 자유 작품 공모전 당선작 갤러리**
- 96 **오블리제 클럽 자유 작품 공모전 안내**
- 97 **오블리제 클럽 문자 참여 이벤트 안내**

발행처

미래에셋대우

발행처 주소

서울 중구 을지로5길 26(수하동, 미래에셋센터빌딩)

발행일

2018년 5월 18일(Vol. 49)

총괄 진행

미래에셋대우 VIP서비스본부(02-3774-6066)

디자인·인쇄

한국경제매거진(주)



28

Heritage

한국 전통 가구에 깃든 옛 생활문화, 한국가구박물관



54

글로벌 플랫폼 기업
우리 텐센트가 달라졌어요



76

‘가정의 달 기념’ 자유 작품 공모전 당선작 갤러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블리제 클럽〉은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www.miraeassetdaewoo.com > 회사 소개 > 홍보 > 오블리제 클럽 매거진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투자 결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채권은 발행사의 신용위험(미래에셋대우, 신용등급AA/한국기업평가(주)/2017년 5월 12일 기준)에 따라 상환되며 발행사의 부도 또는 파산 시 원금손실위험이 있습니다. ● 당사는 당사 발행 외의 채권(또는 CP)에 대해 중도환매 및 원리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중도매매시 시장금리 등에 따라 원금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종매매는 거래전략 등 증권시장 전반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단기간 내에 상당액을 손실할 수 있고, 잦은 매매로 인한 세금 및 수수료의 과다 발생으로 수익 실현 기회가 극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식거래수수료 : [국내]신규 영업점 개설 계좌 온라인 0.14%/오프라인 0.49%, [해외]온라인 0.25~0.45%, 오프라인 0.5~1% 등(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매거진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금융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 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
상상을 구현한
21세기 창조적 건축

II.
자연에 바치는 인간의 찬사

III.
일상 속 멋진 건축물

상상이 꽃피는

건축

사막 위에 유리강철로 만든 미래 도시, 두바이에 새로운 명물이 등장했습니다. ‘두바이 프레임Dubai Frame’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액자’로 불리는 빌딩입니다. 전망대가 액자 모양이라니, 마치 아이의 그림처럼 알기 쉽고 재미있는 상상이 돋보이는 건축물입니다. 두바이에는 지금도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상상력에 첨단 기술과 자본을 결합한 새로운 랜드마크가 계속 건설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생활공간이자, 당대의 문화를 최고의 기술로 표현한 크고 아름다운 예술품입니다.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건축물은 불과 100여 년 전에 건축됐지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도시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상상력과 독창성 덕분입니다. 상상을 제한하지 않는 자유로운 토대 위에서 문화가 피어납니다. <오블리제 클럽>은 초록빛 잎사귀와 각양각색의 꽃이 만발한 계절에 ‘상상이 꽃피는 건축’을 이야기합니다. 도시에 활력을 주는 독특한 건축, 그리고 자연과 어우러진 세계의 건축을 모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눈여겨볼 건축물도 함께 소개합니다.

여행을 떠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어디든 푸르른 자연과 멋진 건축물이 반겨줄 것입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새로움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구현한 21세기 창조적 건축

인간이 집을 짓기 시작한 이래로 건축은 새로운 도전과 실패를 겪으며 발전했고, 건축가는 상상 속의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구조, 기술, 재료 사용 방식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20세기 후반에 눈부시게 발전한 디자인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했다. 그에 힘입어 21세기는 바야흐로 건축가가 무한한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건물이 속속 도시에 선보이고 있다.



쿤스트하우스, 중세도시에 등장한 친근한 외계인

2003년 영국 건축가 피터 쿡^{Peter Cook}과 콜린 푸르니에^{Colin Fournier}는 오스트리아 그라츠에 ‘쿤스트하우스 Kunsthaus’를 디자인했다. 이 건물은 완공되자마자 건축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디자인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9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오스트리아 제2의 도시 그라츠는 구도심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피터 쿡과 콜린 푸르니에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중세도시에 마치 우주선이 내려앉은 듯한 파격적 형태의 현대미술관을 디자인했다. 쿤스트하우스는 주변의 고전 건물들 사이에 조심스럽게 밀가루 반죽을 쏟아부은 것 같은 모습이다. 거대한 연체동물물 연상시키는 외관은 두께 15mm의 투명한 청색 아크릴판으로 뒤덮였고, 지붕은 축수를 떠올리게 하는 16개의 유리관을 설치해 자연 채광을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

쿤스트하우스는 비정형의 독특한 외관과 화려한 미디어 아트를 적용해 문화와 역사의 도시 그라츠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기괴한 조형물을 연상시키는 쿤스트하우스의 백미는 첨단 미디어 아트를 도입한 건물의 외관이다. 피터 쿡과 콜린 푸르니에는 청색 아크릴판 속에 930개의 원형 형광 전구를 설치하고, 초당 20프레임씩 밝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조명 장치 덕에 거대한 스크린으로 변신한 건물의 동쪽 입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미지와 애니메이션, 문자 등이 나타나면서 그 주변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생동감 넘치게 만든다. 어둑어둑 해가 지는 초저녁이면 고색창연한 고전 건물들 사이로 웅장함을 드러낸 쿤스트하우스의 입면에 역동적으로 춤을 추는 여인의 모습이 등장한다. 주변을 지나는 시민과 관광객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건물 입면에 펼쳐지는 공연을 즐겁게 감상한다. 쿤스트하우스는 파격적인 건물의 형태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미디어 아트를 결합해 새로운 도시 경관을 창조함으로써 중세도시의 생동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여러 가지 빛깔의 철판을 부드럽게 구겨놓은 듯한 엘시예고 부티크 호텔은 건축물을 조각품처럼 창의적으로 디자인하는 프랑크 게리의 작품이다.

엘시예고 부티크 호텔, 와인처럼 넘실대는 건물

미국 건축가 프랑크 게리^{Frank Gehry}는 건물을 마치 조각처럼 자유자재로 다루며 명실공히 현대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특히 게리는 최첨단 컴퓨터 프로그램과 실물 모형 작업을 통해 건물의 형태와 디테일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건축가로 명성을 떨친다. 비행기 외장재인 티타늄판을 이용한 ‘빌바오 구겐하임 박물관’^{Bilbao Guggenheim Museum}이 메탈 플라워(철로 만든 꽃이라는 애칭)의 출발이라면, 2006년 스페인 북동부 리오하의 와인 생산지 엘시예고에 완공한 마르케스 데 리스칼^{Marques de Riscal}의 ‘부티크 호텔’^{Boutique Hotel}은 재료와 디자인 부분 모

두 최고의 완성도를 선보였다. 리오하는 유럽을 대표하는 와인 생산지다. 이곳에 자리 잡은 150년의 역사를 지닌 와이너리 마르케스 데 리스칼은 20세기 후반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면서 프랭크 게리에게 호텔의 디자인을 의뢰했다. 왜냐하면 단순한 기능적 건물을 넘어 건축이 지역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와인 생산지로 유명하지만 스페인의 작은 마을에서 당대 최고의 건축가를 섭외하고, 그 제안을 섣뚱 수락한 프랭크 게리 역시 많은 사람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게리를 설득하기 위해 그가 태어난 해인 1929년산 와인을 선물했다고 한다.

부티크 호텔은 43개의 객실과 온천, 레스토랑을 갖춘 조그만 호텔이다.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게리는 구겐하임 박물관의 디자인에서 선보인 티타늄판을 더욱 과감하게 활용해 조형성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티타늄판을 구부리고 말아서 디자인한 건물 외관은 경쾌한 리듬감을 지녀 멀리서 보면 마치 넘실대는 와인 같은 모습으로 다가온다. 흥미로운 점은 전혀 다른 재료와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고전 건물과 묘한 조화를 이루며 정열적인 스페인의 이미지 또한 충분히 드러낸다는 것이다. 부티크 호텔의 외관은 세 가지 색의 티타늄판을 사용해 자연 채광을 받으면 시시각각으로 화려한 색을 반사한다. 보라색은 레드 와인, 황금색은 와인병의 전통적 라벨, 은색은 와인병의 캡슐을 상징한다. 화려한 외관과는 다르게 내부는 매우 기능적으로 디자인했고, 방문객들이 각각의 위치마다 치밀하게 계산된 창을 통해 마치 액자처럼 주변의 고전적 풍광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이라기보다 섬세한 철제 조각품을 연상시키는 부티크 호텔은 스페인의 조그만 무명 도시이던 엘시예고를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로테르담 마르크트할은 재래시장과 공동주택을 창의적으로 결합한 독특한 건축물이다.

로테르담 마르크트할 내부는 네덜란드의 정물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형 벽화를 활용해 예술적 공간을 자랑한다.

로테르담 마르크트할, 재래시장과 공동주택의 결합

네덜란드 남서부에 있는 로테르담은 명실공히 유럽에서 가장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도시로 평가받는다. 로테르담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시대를 선도하는 걸작들이 건립되었는데, 2014년 기존 대작들을 능가하는 파격적 건물이 완공되었다. 네덜란드의 엠브이아르디브이 MVRDV가 디자인한 ‘로테르담 마르크트할(Rotterdam Markthal)’이 주인공이다. 로테르담 시내의 블락 광장에 들어선 마르크트할은 높이 40m, 길이 165m의 거대한 터널 구조물 안에 재래시장을 디자인하고, 상부에 공동주택을 결합해 전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마치 거대한 말발굽처럼 생긴 아치형 건물에 288채의 아파트를 디자인해 저층부의 재래시장과 통합함으로써 상상을 초월한 주상복합 건물이 탄생했다. 재래시장 위에 올라선 아파트의 경우 안쪽에서는 창을 통해 재래시장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고, 바깥쪽에서는 도시를 조망할 수 있다. 또 저층부에는 상가와 식당을 비롯해 각종 편의 시설이 들어서 재래시장과 현대식 백화점의 장점만 결합했다. 건물은 충분한 주차 공간을 보유하고, 외부에 넓은 녹지가 자리 잡

고 있어 어느 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로테르담 마르크트할의 백미는 우아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내부의 천장이다. 특수 코팅 처리한 4000개의 알루미늄 패널은 그 자체로 거대한 캔버스와 다름없는데, 여기에 아르노 쿨넨^{Arno Coenen}과 이리스 로스캄^{Iris Roskam}이 공동으로 벽화를 그렸다. 두 화가가 작업한 대형 벽화를 가열한 후 알루미늄 패널에 프린팅하는 혁신적 공법을 적용했다. 천장을 뒤덮은 그림은 17세기 네덜란드의 정물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화려한 모습과 색상으로 묘사된 꽃과 곤충의 이미지는 네덜란드의 고유한 감성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 밝고 경쾌한 그림으로 뒤덮인 천장은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고기, 생선, 야채를 더욱 신선하게 보이도록 한다. 완공된 지 불과 4년밖에 안 되지만 로테르담 마르크트할의 천장 그림은 세계 최대 규모로 이미 ‘로테르담의 시스틴 채플(Sistine Chapel of Rotterdam)’이라는 영광스러운 별명까지 얻었다. 로테르담의 유쾌한 상상력과 도전이 낳은 결과다. ■

글 | 사진 김정후 _ 런던대학교 UCL 펠로 건축가이자 도시사회학자

현재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펠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도시 건축과 디자인 등에 대한 다양한 글을 기고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건축 정책 자문을 맡고 있다. 저서로 <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가>, <유럽 건축 뒤집어 보기>, <작가 정신이 빛나는 건축을 만나다> 등이 있다.

자연에 바치는 인간의 찬사

건축물은 인간이 만든 가장 거대한 예술품이다. 공간을 설계하는 건축가들에게 자연은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다. 흐르는 물, 휘어진 언덕과 빛나는 하늘 등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천재 건축가들의 아름다운 건축 세계를 소개한다.



보데가스 이시오스를 설계한 산티아고 칼라트라바는 스페인 발렌시아 출신의 미국 건축가이자 조각가이며, 구조공학 박사다. 현대건축에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는 그는 주로 자연과 인체에서 모티브를 얻은 건축을 많이 선보이고 있다.

산티아고 칼라트라바, 리오하 와이너리 보데가스 이시오스

스페인 리오하 지역은 세계 5대 와인 산지 중 하나로, 붉은 토양에 작열하는 태양이 내리쬐는 고장이다. 리오하에서 가장 유명한 와이너리, 보데가스 이시오스 Bodegas Ysios가 만들어내는 풍경은 환상적이다. 붉은 땅 위에 푸른 포도나무가 자라고, 그 너머엔 햇빛에 빛나는 은빛 파도가 떠 있다. 대서양

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려는 듯 우뚝 선 리오하 북쪽의 시에라 칸타브리아산맥과 어우러지며 조화를 이룬 모습이다.

이곳의 와인 생산업체인 보데가스 & 베비다스 Bodegas & Bebidas 그룹은 와인 명가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와이너리 건축을 기획했다. ‘조화’를 상징하는 이 건축의 설계는 스페인이 낳은 세계적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맡았다. 물결 모양의 지붕은 목재를 사용해 제작한 후 알루미늄을 코팅한 것이다. 내부는 숙성을 위한 와인 저장고이며 물결 중 가장 높은 부분은 방문자 센터다.





구엘 공원을 비롯해 카사 바트요 등 바르셀로나에 자리한 가우디의 건축물 7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가우디, 바르셀로나 구엘 공원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곡선의 건축을 고집한 이유는 건축이 자연의 일부여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다.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신의 선이다’라는 가우디의 철학은 그가 만든 모든 건축물에 녹아 있다.

특히 정원과 건축이 어우러진 구엘 공원Parc Güell에서 가우디의 자연에 대한 사랑과 ‘신의 선’인 곡선에 대한 찬사가 가장 잘 드러난다. 가우디는 산지로 이루어진 공원 부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건축이 지형을 따라 파도치듯 흘러내리도록 만들었다. 자연석으로 난간을 쌓고, 울퉁불퉁한 돌로 기둥을 만들었는데, 기둥은 재미있게도 야자수 모양이다.

구불구불한 곡선의 가우디 건축물은 바르셀로나 전체의 이미지를 바꿔 놓았다. 형형색색의 타일과 굽이치는 외벽 모두 마치 그림처럼 비현실적이다. ‘가우디의 도시’를 방문하는 이들이 한 해에만 수백만에 이르니, 건축가의 영향력은 세기를 넘어선다.

자하 하디드, 아부다비 셰이크 자이드 다리

아부다비 셰이크 자이드 다리Sheikh Zayed Bridge가 그리는 부드러운 곡선은 사막에 물결 모양을 이룬 모래언덕을 모티브로 했다. 오픈형 갑판 아치교로 위와 아래, 옆에서 보는 모습이 모두 각기 다른 인상을 준다. 복잡한 구조의 비정형 곡선으로 이루어진 이 다리는 경계 없는 건축으로 유명한 자하 하디드가 설계했다.

자하 하디드에게 건축의 영감을 준 것은 어린 시절 방문한 이라크 남부의 수메르 고대 도시다. 인류 최초의 도시가 건설되었던 수메르는 늪지대에 모래와 물, 자연과 건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모습이였다. 그의 미래에서 온 듯한 파격적인 건축디자인에서 자연의 부드러운 선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바탕에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



셰이크 자이드 다리를 설계한 자하 하디드는 1950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태어나 2004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 건축상을 수상했다.

일상 속 멋진 건축물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은 우리 주변에도 있다. 국내와 해외의 유명 건축가들이 설계한, 건축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물들이다. 알고 나면 그 남다른 미학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미니멀리즘의 정수

건축가 알바루 시자와 김준성이 설계한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경기도 파주시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에 자리한다. 이 건물은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인데 일반 건축물의 구성과 달리 마치 하나의 조각품처럼 거대한 덩어리로 이루어졌다. 장식이 없는 절제된 우아한 곡면은 빛을 받으면 시시각각 다른 이미지를 연출하고, 단순한 기하학 형태는 오히려 풍요로운 건축적·공간적 상상력을 유발한다.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구성하고 극도로 단순한 전시 공간은 전시품의 특성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모더니즘의 마지막 거장으로 불리는 알바루 시자는 절제된 형태와 빛의 연출을 통해 모더니즘 건축의 감동과 아름다움이 여전히 유효함을 입증한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윤동주문학관



강정보 디아크 문화관



본태박물관

윤동주문학관, 시를 품은 수도가압장

건축가 이소진이 설계한 ‘윤동주문학관’은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에 자리한다. 1974년에 청운시민아파트와 청운단독주택에 물을 공급을 하기 위해 가압장을 설치했으나 2009년에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압장도 폐쇄되었다. 종로구는 건물을 철거하는 대신 이 일대에서 활동한 당대의 시인 윤동주를 기념하는 문학관으로 탈바꿈시켰다. 백미는 가압장의 일부이던 콘크리트 물탱크를 그대로 활용해 디자인한 전시실이다. 지붕을 제거한 열린 공간은 그야말로 하늘과 바람으로 대변되는 윤동주 시인을 떠오르게 한다. 거친 산업시설의 구조를 유지한 채 자리 잡은 윤동주문학관은 윤동주의 시만큼 묵직하고, 아름답다. 우리나라 산업유산 재활용 사례의 대표 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정보 디아크 문화관, 새로운 낙동강의 경관

건축가 하니 라시드가 설계한 ‘강정보 디아크’는 대구시 달성군에 자리한다.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위치에서 마치 물고기가 수면 위로 튀어오르는 듯한 파격적인 모습으로 디자인했다. 완공 이후 강정보 디아크의 건축적 조형성과 예술미는 세계적으로 찬사받았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셸 구조를 통한 비정형 건물의 미학적 정수를 발산한다.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보이는 강정보 디아크는 첨단 기술을 통한 공학적 이미지와 더불어 전통 도자기의 우아함을 상징한다. 강정보 디아크는 자연과 건축이 어우러져 새로운 낙동강 경관을 창조하고, 시민에게 즐겁고 풍요로운 공간을 제공한다.

본태박물관, 건축과 자연의 만남

제주도 서귀포에 자리 잡은 ‘본태박물관’은 일본의 세계적 거장 안도 다다오의 작품이다. 안도 다다오는 노출 콘크리트를 주재료로 건물을 디자인하고, 빛·물·자연이 어우러져 원초적이며 기하학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디자인으로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 본연의 모습이라는 뜻이 담긴 본태박물관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안도 다다오 건축의 장점을 더욱 배가한다. 대지에 차분하게 순응하는 형태와 기하학적으로 구성된 공간 안에 전시된 우리나라 전통 공예, 미술 소장품은 그야말로 환상적 조합이라 할 수 있다. 박물관을 걷다 보면 어느덧 건축과 자연이 하나 된 공간에서 명상하는 듯한 착각에 빠져든다. 이곳이 제주도이니 그 감동은 더욱 진하게 다가온다. ■

저금리의 어려움이
노후의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미래에셋이 있습니다

수백만 고객께 투자를 통해 수익을 드리는 투자전문그룹
투자를 통해 고객과 사회, 국가에 기여하겠다는 신념은
미래에셋 창업 이래 한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온 분들께 의지가 되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부를 키울 수 있는 좋은 상품을 위해
저희는 다양한 우량자산을 찾고 해외에 진출합니다

저금리를 넘어, 투자를 통해 수익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은행과 다른 투자전문그룹의 방식입니다
좋은 수익과 안정성으로 기여하겠습니다



OBLIGE
CLUB

프리미엄 라이프

- 20 Season** 자연에서 찾은 건강한 식탁
- 24 Travel** 싱그러운 위로慰勞, 태국 치앙마이
- 28 Heritage** 한국 전통 가구에 깃든 옛 생활문화, 한국가구박물관
- 32 Futurology** 디지털 기술이 바꿔놓을 미래 대학 교육
- 36 Heyday** 안녕히 주무셨어요? 만성 불면증 극복
- 38 Healthy Day** 알고 마시면 술도 보약
- 40 Recommend** 출판인 김언호가 권하는 책, 〈뜻으로 본 한국역사〉
- 42 Review** 아주 오래된 공포, 〈프랑켄슈타인〉

Premium Life

자연에서 찾은 건강한 식탁

강원도의 제철 식재료로 건강한 한 상을 차렸다. 흥천의 청정한 숲에서 자란 야생 버섯과 신선한 동해안의 해산물이 초여름의 입맛을 돋운다. 자극적 양념 없이도 재료 본연의 감칠맛에 풍부한 영양까지 갖춘 요리로 건강을 챙겨보자.



강원도 흥천
소뿔산 야생버섯
한우전골

보글보글 향기로운 야생버섯전골

전골은 냄비에 다양한 재료를 푸짐하게 담아 식탁 위에서 따뜻하게 끓여 먹는 요리다. 풍성한 느낌을 주면서도 만들기 쉬운 편이다. 버섯전골은 제철을 맞은 신선한 버섯에 소고기와 각종 야채를 넣어 간을 맞춰 끓이면 완성된다.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온 가족이 둘러앉은 기분 좋은 저녁 식사 시간에도 더없이 어울리는 메뉴다.

강원도의 향과 건강을 듬뿍 담은 ‘강원도 흥천 소뿔산 야생버섯한우전골’의 재료는 조금 특별하다. 흥천 소뿔산 자락에서 채취한 능이버섯, 싸리버섯 등 향이 풍부한 야생 버섯에 황금팽이버섯, 백만송이버섯, 송화버섯 등 특화 버섯을 골고루 넣는다. 여기에 제철 야채, 한우 채끝 등심과 정성껏 우려낸 한우 사골 국물로 그 깊고 진한 맛을 더한다.

특히 능이버섯은 예로부터 “일 능이 이 표고 삼 송이”라고 할 만큼 귀하게 여긴 버섯이다. 향과 식감이 뛰어나고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가 풍부해 소화 작용에 도움이 된다.



동해안 물회
&
메밀국수

시원하게 입맛 도는 물회와 메밀국수

갑자기 찾아온 더위에 온몸이 나른한 오후에는 시원한 물회가 제격이다. 물회는 생각과 달리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이 어렵지 않다. 차갑게 식힌 시판용 냉면 육수에 배·사과 등의 과일과 야채, 전복, 해삼, 생선회 등 좋아하는 해산물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하면 된다. 매콤 달콤한 물회에는 메밀국수가 잘 어울린다. 메밀은 찬 성질이 있어 몸의 열을 내려주고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무와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되니 물회에 무채를 넣으면 좋다.

‘동해안 물회 & 메밀국수’는 배와 파인애플, 사과, 유자 등 과일과 각종 야채를 반나절 우려낸 육수에 진한 사골 육수를 더해 깊은 감칠맛이 느껴진다. 신선한 동해안 해산물을 푸짐하게 담고 각종 야채를 곁들여 비법의 육수에 갖은양념까지 더했다. 메밀국수는 따로 담아냈다.



토하젓
산채비빔밥 &
홍천젓
순두부탕

산채비빔밥 한 그릇이면 강원도 자연의 영양을 고루고루 섭취할 수 있다. 밥 한 숟가락에 부지깥이나물, 삼나물, 오가피순, 취나물 등 신선한 산나물과 묵나물이 어우러져 아삭한 식감과 풍부한 향이 일품이다. 묵나물은 제철인 나물들을 채취해 살짝 삶아서 말린 것인데, 예전에는 이듬해 봄에 먹기 위해 저장한 것이었다. 요즘은 영양이 응축되고 향이 풍부한 장점 덕에 계절 구분 없이 이용한다.

산채비빔밥을 좀 더 특별하게 차려내고 싶다면 ‘토하젓산채비빔밥 & 홍천젓 순두부탕’처럼 새우젓과 따끈한 순두부탕을 곁들여보자. 토하젓은 청정 하천이나 계곡 등 1급수에서 서식하는 민물 새우인 새뱅이를 천일염에 절여 갖은양념으로 맛을 더한 것이다. 여기에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고 해독 작용이 뛰어난 영양 부추를 듬뿍 넣으면 더욱 좋다. 강릉 초당의 담백한 순두부에 강원도 홍천의 특산물인 잣을 갈아 넣은 순두부탕은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입맛을 당긴다.

청정 산골의 재료가 가득한 산채비빔밥

레드 와인과 어울리는 모듬치즈 & 카프레제샐러드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이 기분 좋은 밤, 사랑하는 사람과 와인 잔을 부딪쳐보자. 투명한 유리잔에 담긴 붉은 와인이 낭만적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이다. 레드 와인의 페어링 안주로는 다양한 치즈와 카프레제샐러드가 잘 어울린다. 썰어서 접시에 담기만 하면 되니 만들기도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테라스나 야외 테이블에도 제격이다. 치즈는 우유, 염소유, 양유, 물소유 등 재료와 제조 방법에 따라 수백 종류가 있는데 레드 와인에는 카망베르, 고르곤졸라, 브리치즈 등이 잘 어울린다.

‘모듬치즈 & 카프레제샐러드’는 에멘탈, 브리, 스모크, 몬테레이 잭, 카망베르 등 다양한 종류의 치즈를 예쁘게 썬 모듬치즈와 토마토에 신선한 모차렐라 치즈, 바질 올리브 오일을 더한 이탈리아 남부 카프리풍 카프레제샐러드의 조합이다. 특히 당도가 높은 대추방울토마토와 청포도를 사용해 달콤한 맛이 나면서 이탈리아 보코치니 지방에서 생산한 모차렐라 치즈를 더해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모듬치즈
&
카프레제샐러드



글_임현진 | 사진_박형주 | 촬영 협조와 도움말_블루마운틴 컨트리클럽 한진웅 셰프

싱그러운 위로^{慰勞} 태국 치앙마이

치앙마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취향 존중’ 여행지다. 트레킹을 원하든, 커피를 원하든, 유적지를 원하든, 원하는 모든 형태의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 치앙마이 사람들은 서로의 취향을 존중해준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치앙마이에서는 다양한 새소리가 귓전을 울린다. 옛 유적에서도 새 장식이나 새 모양을 한 신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치앙마이와 이웃 도시 치앙라이를 지배한 옛 란나 왕국의 상징 또한 공작새다. 아침에 각종 새소리를 들으며 눈을 뜨면 치앙마이의 하루가 시작된다. 숲에는 반얀 트리, 캐넌볼 트리, 목화나무, 보리수 등 열대 나무가 늘어서 있다. 아침의 숲길엔 하얀 안개가 자욱하다. 안개 낀 숲 너머로 아침이 밝아오는 풍경은 한눈에 치앙마이에 꼭 빠질 만큼 아름답다.

치앙마이의 명성이 높아진 것도 이 신비로운 숲의 아침 덕이다. 도이인타논^{Doi Inthanon} 산 인근은 치앙마

이의 아침을 맞이하기에 제격이다. 이 산은 미얀마와 태국의 경계를 나누는 로이 라 산맥의 일부이자 태국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해발 2776m(한라산이 해발 1950m)에 달한다. 란나 왕국^{란나타이}의 마지막 왕 인타워차야논의 이름에서 따왔다.

유럽인과 미국인은 흔히 이 산을 트레킹하기 위해 치앙마이를 찾는다. 태국인에게도 숲과 산이 매력적이긴 마찬가지다. 태국에서 높은 산의 풍경은 그리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숲의 도시 치앙마이에서는 도심에서 차로 30분만 벗어나면 울창한 정글과 만나고, 작은 스쿠터를 타고 조금만 외곽으로 달리면 산에 닿는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는 개성 넘치는 레스토랑과 카페가 숨어 있다.

외곽에 자리한 리조트의 정원을 방문하는 것도 치앙마이의 숲을 편안하게 즐기는 방법 중 하나다. 다라테비 치앙마이 리조트 같은 대형 리조트는 전국에서 공수한 거대한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룬 정원을 갖추고 있다. 나무 아래에는 태국, 란나, 미얀마의 유명한 왕궁을 그대로 본떠 지은 건물들이 자리한다. 이 리조트의 테라스와 건물은 미얀마 만달레이 왕궁을 그대로 본뜬 것은 물론, 자재까지 똑같은 것을 사용했다. 여기서는 란나 지방 전통 가옥을 본뜬 빌라에서 묵으며 버틀러의 서비스를 받는 휴식 같은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숲으로 둘러싸인 풀에서 수영을 즐기거나 자전거를 빌려 리조트를 한 바퀴 유람하고, 요가나 푸에타이 혹은 북부 태국 요리도 배울 수 있다.

CHIANG MAI



치앙마이의 아침은 탁발 행렬로 시작된다. 주민들은 매일 음식과 꽃을 준비해두었다가 바친다.



예술의 도시 치앙마이에는 갤러리를 겸한 예쁜 카페가 많다.



다양한 새소리를 들으며 울창한 숲길을 거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

치앙마이의 아침을 여는 공양 행사

치앙마이는 아침 일찍 깨어난다. 새벽이면 각 사원에서 승려들이 하나둘 그날 공양을 위해 마을로 내려온다. 국민의 대부분이 불교 신자(태국 전체 국민의 95%가 불교를 믿는다)인 까닭에 치앙마이 시민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승려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각자 집 앞을 청소하고, 스님께 드릴 먹을거리를 준비해둔다. 행렬을 따라 승려가 나타나면 음식이나 꽃을 바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다. 조용히 무릎을 꿇은 채 기도를 드리는 시민들의 얼굴 속에서 또 다른 치앙마이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오전 6시 30분에서 7시 사이, 도이수텡 산길 초입인 크루바 스리위차이 근처로 가면 탁발 행렬을 쉽게 볼 수 있다. 탁발 행렬이라고 하면 흔히 라오스의 루앙프라방만 떠올리는데, 치앙마이에서도 매일 아침 탁발 행렬이 이어진다.

전통 공예품부터 현대미술 작품까지 가득한 예술의 도시

치앙마이는 예로부터 그 주변에서 가장 큰 시장이 열리는 곳이었다. 덕분에 소수민족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온갖 공예품이 모이는 격전지가 되었다. 다양한 소수민족은 저마다 숨씨를 뽐낸 공예품을 치앙마이의 장에 내다 팔았다. 공예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영향을 받으면서 자연스레 치앙마이는 북부 예술의 도시가 되었다.

치앙마이에서는 갤러리와 카페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다. 예술의 도시 치앙마이의 카페는 대부분 갤러리를 겸한다. 시스케이프 갤러리 Gallery Seescape는 전형적인 갤러리 카페다. 카페 공간 너머에 갤러리와 작업실이 있고, 독특한 조각품이나 장식품도 많다. 이곳에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새로운 전시를 볼 수 있다. 카페 한 편에는 작가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기념품 숍도 마련돼 있다.

이 외에도 카페와 갤러리를 둘러싼 건물부터 벽지, 테이블, 쿠션, 의자까지 평범한 것이 하나도 없다. 카페 우^{Woo}는 님만해민 거리에서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갤러리 카페다. 눈부신 초록빛 외관으로 첫눈엔 정원 카페처럼 보이지만 2층에 본격적인 전시실까지 두고 있는 어엿한 갤러리 카페다. 주말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빈다.

반캥왓^{Bann Kang Wat}은 공항 근처 왓우몽^{Wat wmong} 사원 옆에 자리한 작은 예술 마을이다. 반캥왓은 태국어로 사원 앞이라는 뜻. 잔디 마당 너머로 들어가면 2층짜리 목조 저택이 여섯채 정도 있는데, 레스토랑부터 카페, 나무 공방, 중고 북 카페 등 다양한 숍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반캥왓의 대표 디자이너 빅은 비슷한 생각과 취향을 지닌 이웃들과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 이 동네를 만들었다고 한

다. 기념품 숍에서 판매하는 공예품을 바로 옆 공방에서 목공예가가 나무를 조각해 만들고 있다. 그 곁에는 자신의 켈트 작품에 집중하고 있는 켈트 장인이 있다. 곳곳에 장식된 예술가들의 작품은 물론 화장실 푼말까지 위트가 넘친다. 이곳에서 유머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어떨 때 보면 재미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같기도 하다.

치앙마이의 공기, 걸었던 숲길, 도이수텡에서 바라본 호쾌한 야경, 숲속 레스토랑에서의 한가로운 시간들, 무엇보다도 느슨한 이곳 사람들의 태도는 큰 위로가 된다. 조금 긴 휴가에 방문한다면 작은 스쿠터를 타고 숲길을 누비다 마음에 쏙 드는 카페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한국 전통 가구에 잇든 옛 생활문화 한국가구박물관

한국 전통 가구는 일상 속 공예품이자 사대부의 철학이 담긴 예술품이다. 안방에 놓인 장 하나에는 사용하는 이의 체격과 취향뿐 아니라 나무와 자연을 대하는 마음, 주생활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국 전통 가구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깊이 스며든 정신적 유산을 되새겨본다.



뒤주는 한옥을 지을 때와 같은 짜임으로 만들어진 한국전통가구다. 다양한 크기로 제작하여 쌀, 콩 등 곡식과 책을 보관하는 데 사용했다.

절제, 비례, 균형의 아름다움

한국 전통 가구는 중세의 유물보다 컨템퍼러리 디자인 작품에 가깝다. 해외 유명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이 그 실용주의적 모던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한국의 디자인 감각이 서양의 모더니즘보다 100년쯤 앞서지 않았나 이야기할 정도다. 같은 시대에 제작한 화려한 조각과 금장식으로 치장한 서양의 바로크·로코코 스타일 가구와 비교했을 때 한국 전통 가구는 너무도 현대적 모양과 형태를 갖추고 있다.

나무의 무늬와 결을 고스란히 살린 단아한 가구에서 느껴지는 것은 절제의 아름다움과 비례미 그리고 균형미다. 집 안을 사치스럽게 꾸미지 않은 것은 유교의 영향으로, 물질문화의 화려함이 아니라 정신문화의 깊은 수준으로 들어가고자 한 조선 사대부의 정신이자 삶의 태도 때문이었다. 화려함 대신 절제의 아름다움을 선호한 것이다. 집이나 가구 모두 나무 재질 자체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은 현대적 디자인 감각과 통한다.

비례미와 균형미는 가구 형태와 큰 가구를 짤 때 짜 맞춘 여러 개의 판재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 계절별로 온도와 습도의 차이가 크다. 나무는 습기 많은 여름엔 팽창했다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수축하면서 뒤틀린다. 그래서 큰 가구를 만들 때 판재를 크게 쓰지 않고 작은 판재를 여러 개 맞춰서 사용한다. 실용적 목적으로 먼 분할을 해서 구성하는데 그 조각조각을 나눌 때 디자인적으로 고민을 하게 된다. 가구 형태와 먼 분할 방식에서 비례와 균형을 고려했기에 은은하게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가구에 담긴 선인의 생활

한국 전통 가구는 사대부의 철학이 담겨 있는 남성의 문화다. 당시 가구의 크기와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그 집안의 가장인 사대부였다. 지금과 달리 장보는 것도, 가구를 주문하는 것도 모두 남자의 소관이었다. 집주인보다 키가 큰 가구는 기를 누를 수 있다고 여겼기에 장의 높이는 그 주인의 키보다 낮게 제작했다. 금속 장식도 상징적 의미로 제작했다. 원형은 하늘, 사각형은 땅, 나비는 남자, 꽃은 여자를 뜻한다. 안방 가구에 어떤 모양의 장식을 할 것인가도 그 집안 가장의 취향에 따랐다.

책함은 한국 전통 가구의 실용성과 디자인 감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가구다. 한 시리즈에 속하는 여러 권의 책을 구분해서 보관하기 위해 책 크기에 맞춰서 짤 함이다. 대개 가볍고 쪼먹지 않으며 습기가 차지 않는 오동나무로 제작했다. 위로, 옆으로 쌓으면서 책 종류에 따라 진열하는

책장과 책을 담아서 옮기는 보관함의 역할을 겸했다. 당시 책은 한번 펼칠 때마다 먼지가 많이 나서 편안하게 이동·보관하기 위해 책함을 사용했다.

공부할 때 쓰는 책상인 서안도 사용하는 사람에 맞게 제작했다. 가로로 긴 서안은 글을 쓰는 용도이고, 짧은 것은 책을 읽는 용도다. 귀가 둥글게 위로 말려 올라간 것은 두루마리 문서를 주로 사용하는 이가 쓰던 것이다. 길이와 폭뿐만 아니라 높이와 모양도 다양하게 제작했다. 높이가 제각각 다른 이유는 주인의 앉은키에 맞춰기 때문이기도 하고, 신분에 따라 방식의 높이가 달랐기에 이를 반영해 섬세하게 조정한 것이다.

부엌 가구의 대표 격인 뒤횼은 대개 느티나무로 제작했다. 느티나무는 나뭇결도 강렬하지만 향도 강해서 쥐나 벌레가 들지 않는다. 큰 것은 주로 쌀, 작은 것은 콩을 담았으며, 담은 물건에 따라 구분했기에 책을 담는 책 뒤횼도 있다. 뒤횼은 뚜껑을 위로 들어 올려서 여는 형태로, 몸통은 접착제나 못을 쓰지 않고 나무를 교차시키는 사괘물림으로 제작했다. 이는 한옥을 짓는 방식과 같아서 뒤횼을 작은 한옥이라고도 한다.

한국 전통 가구의 또 다른 특징은 나무를 다루는 방법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땅은 대부분 산지로 되어 있고, 산에 자라는 나무는 수종이 1000종이 넘는다. 이 중 가구의 목재로 쓰는 것이 100여 종이다. 나무 전문가이기도 했던 우리 조상은 작은 소반 하나를 만들 때도 나무 성질에 따라 여러 종의 나무를 섞어서 썼다. 무늬가 아름다운 먹감나무는 앞판의 장식재로 사용하고 튼튼해야 하는 골조는 소나무를 사용하는 식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한국 전통 가구에 딱 들어맞는다. 단아한 멋은 자칫 밋밋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구 하나하나에 철학과 기술, 취향, 정성, 삶의 태도 등 수많은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책함은 시리즈로 모은 책의 가로세로 길이에 따라 각기 달리 제작해 책을 보관, 이동하는 용도로 썼다.



책함과 서안은 사대부의 생활을 잘 반영한 가구다. 서안 높이와 모양은 사대부의 앉은키와 용도에 따라 주문 제작했다.



한국가구박물관

우리 주생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사립 박물관으로, 서울 성북동에 자리한다. 지하 전시실과 지상 한옥에 한국 전통 가구를 전시하고 있다. 정미숙 관장은 1960년대부터 총 2500여 점의 한국 전통 가구를 수집했으며, 현재 지하 전시실에 55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소장품은 대개 조선 시대 후기인 120~150년 전에 제작한 것들이며, 200~300년 된 가구도 많다. 지상의 한옥은 궁궐 기와와 기둥으로 짓거나, 다른 곳에 있던 고택을 옮겨온 것이다. 홈페이지에서 가이드 투어를 예약한 후 관람할 수 있다.

가구를 품은 집, 집을 품은 자연

문화란 의식주다. 무엇을 입고, 먹고, 어떤 집에서 지내는지에 한 문화의 정수가 담겨 있다. 다른 문화를 체험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집에 초대 받아서 둘러보는 것이다. 한국가구박물관에서는 한국 전통 가구뿐 아니라 우리 전통 주생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안내에 따라 전시장에서 각 가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구가 배치된 한옥 방에 관람객이 직접 앉아볼 수 있다. 한국 전통 가구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그렇게 전통 주생활 문화로 확대된다.

우리 조상은 자연에 집을 앉혔고, 집에 맞춰 가구를 주문 제작했다. 주변 지형을 고려해 집터를 정하고, 대목장이 왕실·반가·민가의 격식에 따라 집을 지으면 소목장이 집 크기에 맞는 가구를 짜서 넣는 식이었다. 한국 전통 가구의 진면목을 알기 위해서는 한옥에 두고 그곳에 앉아봐야 한다.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목재로 만든 나지막한 문갑은 팔꿈치를 걸쳐 기대기 좋은 높이다. 그 위 창 너머로 보이는 앞산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인 듯 아름답다. 이를 경치를 빌린다 하여 차경(借景)이라고 한다. 그 옛날 사대부는 문갑에 기대앉아 사계절이 모두 지나는 산허리 풍경을 그림처럼 감상했다.

우리의 주생활이 입식으로 바뀐 까닭에 한국 전통 가구는 서서 보면 낮고 작아 보인다. 옛 주생활의 높이이던 방바닥에 앉아서 보아야 한국 전통 가구와 한옥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한옥에 놓은 작은 책상부터 시작해보자. 바닥에 앉아서 관심 어린 눈길로 찬찬히 전통 가구를 들여다보는 것이 시작이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너무도 급격히 사라진 우리의 주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그 깊은 정신세계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첫걸음일 것이다. ■

글 _ 임현진 | 사진 _ 박형주 | 촬영 협조와 도움말 _ 한국가구박물관 박중선 이사

디지털 기술이 바뀌놓을 미래 대학 교육

흔히 19세기 교실에서 21세기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교육정책은 수시로 바뀌지만 교실에서 이뤄지는 수업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이 대학 교육의 양상을 뿌리부터 바꿔놓고 있다. 미래의 대학은 지금과 아주 다른 모습일 것이다.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대학교육

전통적인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기존 교육에 디지털을 접목한 이러닝e-learning이 도입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미래의 교육을 향해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는 것은 바로 대학 교육이다. 디지털 기술의 보급뿐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산업의 급격한 패러다임 시프트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전에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을 마치고 취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교육체계와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런 단계를 거친 사람이 더 이상 경쟁에서 유리하지만은 않게 되었다. 기본적인 교육 토대도 필요하지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다. 지금의 교육은 일종의 독점 체계다 보니 기업이 관여하기 어려운 구조지만,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유지될지 알 수 없다. 앞으로 기업이 교육체계에 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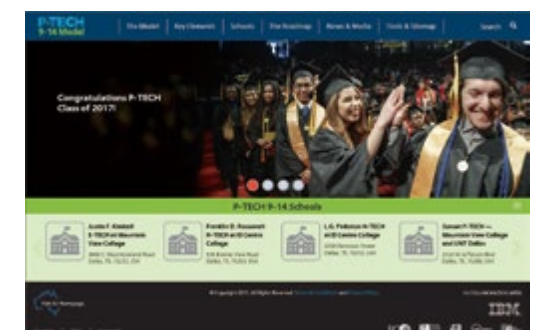
하는 일도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미 상당수 기업이 공공 목표를 제시하고 교육 혁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 IBM이 시행한 P-TECH^{Pathways in Technology Early College High School}는 커리어와 이공계 교육에 초점을 맞춘 9~14학년 고등 전문 교육과정 모델이다. 고등학교 과정(9~12학년)에 전문대학(13~14학년) 과정을 통합해 5년제로 운영한다. 이공계 분야 취업이나 4년제 대학을 입학하기 위한 준비 단계다. 미국에서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교육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뿐더러 고등학교 중퇴 비율이 30%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P-TECH는 기존 고등학교와 커뮤니티 전문대학 과정을 재구조화했다. 고등학교, 전문대학, 산업계를 체계적인 파트너십으로 연결하는 전문학사 수준의 교육과정이다.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공립학교 모델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원되었고, 저소득층 우선 지원 제도도 도입했다. 이전에는 교육을 지속하지 못하던 학생들이 IBM이 직접 관여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조기에 대학을 다니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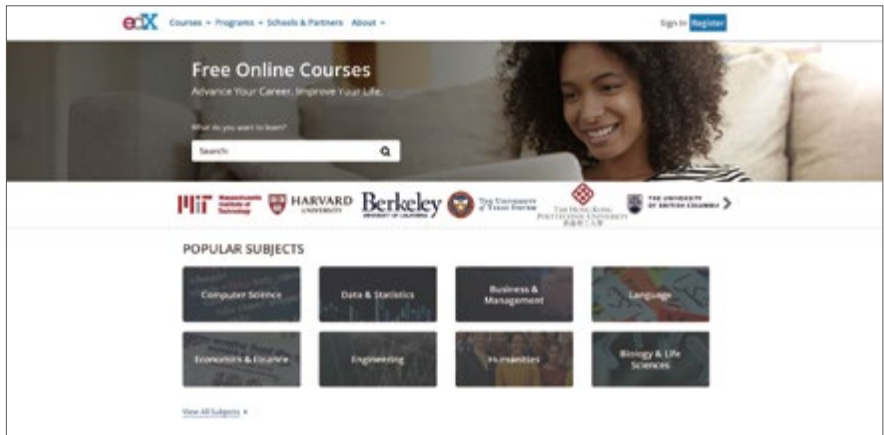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무크^{MOOC}의 파괴력

미래 교육과 관련해 가장 폭발적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유다시티^{Udacity}, 코세라^{Coursera}, 에드엑스^{edX} 등의 플랫폼으로 대별되는 무크^{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s}의 폭발적 성장이다.

대규모 온라인 공개수업을 뜻하는 무크는 스탠퍼드대 교수와 연구진이 설립한 유다시티라는 기업에서 시작했다. 유다시티의 공동 설립자 중 한 명인 서배스천 스런^{Sebastian Thrun}은 구글의 무인 자동차 사업을 이끈 인물이다. 그는 칸 아카데미의 설립자 살만 칸^{Salman Khan}의 테드^{TED} 강연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살만 칸은 자신의 아이들과 조카들을 위해 만든 공개형 수학 교육 콘텐츠가 아이들의 친구에게로 계속 퍼져 나가자 세계적인 온라인 아카데미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살만 칸의 강연을 들은 서배스천 스런은 온라인 공개수업의 엄청난 영향력을 간파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



'P-TECH' 홈페이지.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대학 입학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버드대와 MIT가 협력해서 설립한 '에드엑스' 홈페이지에서는 양질의 대학 강의를 전 세계에서 수강할 수 있다.

작했다. 스탠퍼드대에서 최고 인기를 누린 '인공지능 입문' 강의를 살만 칸이 한 방식으로 전 세계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다시티에서 공개한 최초의 무크이다.

서베스천 스런은 2011년 9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인공지능 입문'을 유다시티에 공개했다. 최초 강의 등록자는 무려 15만 명이었으며 수강생은 숙제 제출은 물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도 통과해야 했다. 최종적으로 강의 수료자는 등록자의 3% 정도인 약 4000명이었는데, 그중에서 과제 평가에서 모두 A학점을 받은 300여 명의 학생은 서베스천이 추천서를 써 주어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 많은 수가 입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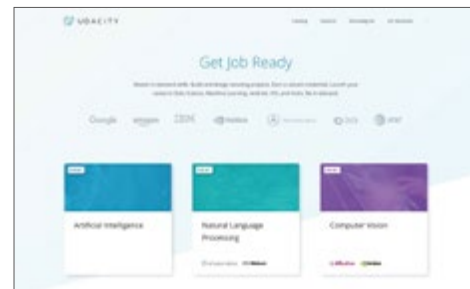
무크 첫 강의 기회를 놓친 스탠퍼드대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했다. 스탠퍼드대 교수인 앤드루 응(Andrew Ng)이 대학 연합 무크인 코세라를 만든 것이다. 스탠포드대의 라이벌인 버클리대와 미시간대 등은 협력하지 않았지만 많은 학교가 참여했다. 정식 무크라고 할 순 없지만 공개 강의 개념을 제일 처음 도입한 학교인 MIT에서도 하버드대와 협력해 새로운 교육 무크 법인인 에텍스를 설립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미래 시대 고등교육,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

예전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개인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 혜택도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우리나라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대학은 전 세계에 대학 교육을 마케팅하는 도구로 에드엑스와 코세라를 사용한다. 수십만 명이 강의를 무료로 수강한다 해서 대학 측이 크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 반면 등록자에게 배지 형태로 수업 인증을 해주면 강의를 제공한 학교가 널리 홍보된다. 또 해당

학교에 입학할 때 무크 인증자에게 혜택을 준다면 대학을 글로벌하게 확장할 수도 있다.

유다시티는 또 다른 접근 방법을 선택했다. '인공지능 입문' 무크를 처음 공개하고 약 3년 뒤인 2014년 6월, 유다시티는 나노디그리(Nanodegree) 강의라는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나노디그리는 취업을 위한 기술 교육과정으로, 기존의 대학 학위보다 유다시티 인증을 받고 취업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했다. 가장 먼저 지원에 나선 곳은 서베스찬 스런의 강력한 조력자인 구글이었다. 구글은 나노디그리에 안드로이드 개발 관련 강의를 제공했다. 실제 구글 개발자가 교수로 나선 이 강의는 3개월, 6개월 과정 등 6개 코스로 나뉘어 있다. 프로그램마다 조교가 있어서 코드 리뷰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프로그램은 유료로 6개월 과정은 한 달에 199달러의 수강료가 든다. 수강생은 초급·중급 등 수준에 따라 학점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과정을 모두 마치면 그동안 지불한 학비의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글처럼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기업들은 나노디그리를 취득한 학생에게 취업 기회를 넓혀주었고, 덕분에 나노디그리는 모바일 프로그램 관련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위로 급부상했다.



스탠퍼드대 교수와 강의진이 처음 시작한 대규모 온라인 공개수업 기업 유다시티의 홈페이지. '나노디그리'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기술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현재 유다시티에서는 구글 외에도 미국 최대 통신사 에이티앤티(AT&T)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대학 교육을 송두리째 혁신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게 느껴진다. 실제로 서베스찬 스런은 현재 대학의 90%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의 고등교육 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에 거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 미래 고등교육과 대학의 미래는 이미 폭풍 전야에 들어갔다. 혁신하지 않는 곳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며, 새로운 교육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근본 부분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글 _ 정지훈 미래학자, IT융합 전문가

미래학자로서 미래 트렌드와 전략에 대해 다양한 칼럼을 쓰며 정부 기관이나 기업체의 강연과 자문을 겸한다. 현재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선임 강의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래 자동차 모빌리티 혁명>, <거의 모든 인터넷의 역사>, <내 아이가 만날 미래>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폭넓은 통찰력으로 독자와 만나고 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만성 불면증 극복

일확천금을 기대하게 만드는 좋은 꿈까지는 필요없다. 숙면만 취해도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 수면은 일상생활의 근간인데, 갈수록 잠을 설치는 만성 불면증 환자가 늘고 있다. 잠에 대한 불안을 떨치고 숙면의 즐거움을 되찾아보자.

“작년 초부터 잠자기가 힘듭니다. 고3 아들이 공부 마치고 잠들 때까지 저도 안 잤는데 그때부터 불면이 생긴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험 스트레스가 없는데도 계속 잠이 안 오니 이상할 따름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더 심해져 너무 괴롭습니다. 누우면 잠은 들지만 새벽 1~2시면 깨요. 그러곤 자다 깨다를 수차례 반복합니다. 어떨 때는 밤을 꼴딱 지새울 때도 있고요.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잔 것 같지 않습니다.”

잠에 대한 걱정이 만든 불면의 밤



좋은 수면은 누우면 빨리 잠들고, 한번 잠들면 깨지 않고 깊이 푹 자고, 그리고 일어나면 개운해야 한다. 누우면 얼마나 빨리 잠드는지는 수면 요소 중 수면의 진입에 해당한다. 깨지 않고 잘 자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수면의 유지와 관련있다. 위 사례에서는 다행히 수면의 진입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면의 유지가 잘 안 되는 상황이다.

깊은 잠을 충분히 자야 아침에 개운함을 느낀다. 뇌가 수면을 통해 충분히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을 잔다고 10시간씩 누워 있어도 깊은 잠이 들지 않으면 잔 것 같지 않고 몸이 피곤하다. 잠은 시간도 중요하지만 깊이도 중요한데, 깊이 잠든다는 것은 그만큼 뇌가 현실에서 멀리 떨어져 고요히 휴식을 취하는 상태다. 얕은 잠을 자면 계속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으므로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뇌가 언제든 일어날 준비를 한 채 살짝 잠든 것으로 야간 경계 근무를 밤새 한 셈이다.

불면이 만성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왜 아들의 대학 입학 후에도 불면이 지속되는 것일까? 처음에는 잠을 못 들게 하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있다. 고3 아들의 입시 준비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져도 계속 잠이 잘 오지 않는 것은 불면 자체가 다시금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 불면을 만들기 때문이다. 처음에 ‘아들이 입시에 성공해야 할 텐데’라는 스트레스가 불면을 일으켰다면 지금은 ‘요즘 잠을 잘 못 자는데 오늘도 새벽에 깨면 어떡하지’라는 불면에 대한 걱정이 스트레스가 되어 수면을 방해한다. 불면에 대한 걱정이 불면을 일으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 남들 보기엔 걱정거리가 없어도 계속 불면이 지속된다.



불면에 대한 역설적 접근

수면 문제가 어려운 것이, 다른 일은 열심히 하면 해결이 되는데 수면 문제는 열심히 해결하려 노력할수록 더 잠이 오지 않기 때문이다. ‘노력을 안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만성화된 불면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의 핵심은 ‘오늘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 하는 불면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 것이다. 오후 시간부터 잠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그래서 운동 등 다양한 행동도 시도해보지만 오히려 이런 불안 반응이 불면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불안 반응은 뇌를 각성시켜 생체 시계가 밤을 인식해 잠들려고 해도 수면에 드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잠이 들어도 깊은 잠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불안에 의한 뇌의 각성 상태를 낮추어주어야 수면이 개선되는데, 각성 상태를 낮추는 게 쉽지 않다. 무조건 눕는다고 잠이 오지는 않는다.

‘난 오늘 새벽 1시까지 자지 않을 거야. 소중한 나의 이 시간을 즐길 거야’라는 역설적 접근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잠을 자기 위해 노력하면 잠자기 위해 전투를 벌이는 상황이 되어 불안감이 더 가중된다. 잠자리에서는 안 오던 잠이 회의나 강의 시간에는 쏟아진다. 자면 안 되는 상황이라 청개구리 반응처럼 수면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줄면서 뇌가 이완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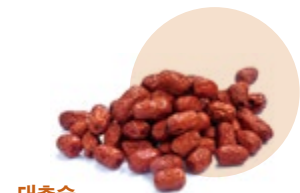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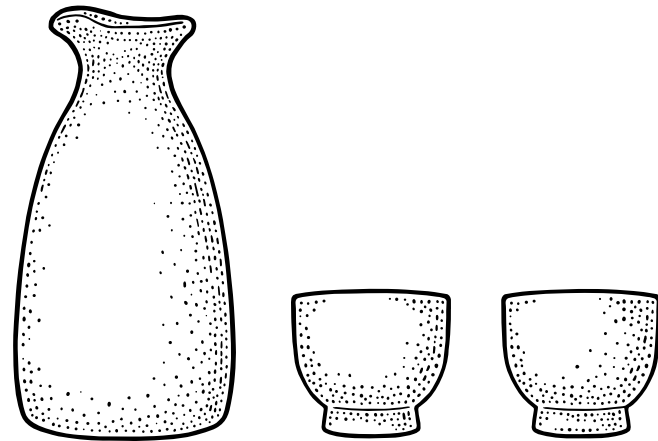
잠이 오지 않는다면 잠자리에 20분 이상 누워 있지 말자. 일어나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다가 다시 잠이 오려고 하면 그때 잠자리에 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잠도 오지 않는데 계속 뒤척이며 누워 있다 보면 잠자리가 수면과의 전쟁터가 되어버린다. 이미 잠자리가 전쟁터라면 잠자리를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된다. ■



글 _ 윤대현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마쳤다. 기업과 정부 기관 등에서 현대인의 소진 증후군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최신 신경과학과 정신의학에 근거한 접근 방식으로 이해를 돕고 있다. 저서로는 <마음 아프지 마>, <윤대현의 마음 성공> 등이 있으며, <나는 초콜릿과 이별 중이다>라는 귀여운 제목의 책도 펴냈다.

음식은 적당하면 이롭고 지나치면 해가 된다. 특히 술이 그러하다. 적당량의 술은 혈액순환을 돕고 기분을 좋게 만든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약술이라 하여 술의 효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체질에 따라 건강하게 약주를 즐기는 법을 알아본다.

알고 마시면 술도 보약



대추술

피로 해소와 노화 방지에 좋다. 대추에는 오래된 기침을 가라앉히고 이뇨·강장, 피로 해소, 식욕 증진 등의 작용이 있다. 또 대추술을 담가 조금씩 마시면 노화 방지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매실술

매실은 양질의 구연산과 사과산이 들어 있고, 씨에는 아미그달린이 풍부해 만성피로, 식욕부진 등에 좋은 약효를 내며 정장 작용이 뛰어나 설사와 변비 증세에도 잘 듣는다.

건강을 위해 금주하라고 하지만, 사실 한의학에서 볼 때 술은 적당량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 각자의 체질에 맞는 술의 종류와 술 마시는 방법을 알아보자. 사람은 개개인의 차이가 있으므로 약술이나 술과 함께 즐기는 음식 역시 체질에 맞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체질에 맞는 약술과 안주

소음인은 비위가 약하고, 몸이 왜소하며, 기가 부족하기 쉬운 체질이므로 성질이 찬 맥주류는 좋지 않으며, 소주나 고량주, 양주, 참쌀동동주, 사과술, 대추술, 인삼술 등이 좋다. 소음인으로 불가피하게 술을 많이 먹어야 할 경우에는 미리 인삼을 먹어두면 술도 덜 취하고 피로감도 덜하다. 술을 마신 후에는 인삼차, 생강차, 꿀물, 복엿국 등을 먹으면 다소 빨리 회복된다. 특히 음주 후에 설사가 나면 건강이 빨리 나빠지기 쉬우므로 참쌀미음이나 생강차를 자주 마시는 것이 좋고, 사우나 또는 찜질방 등에서 땀을 내는 것은 좋지 않다.

태음인은 식성이 좋고 음식을 잘 먹으며 선천적으로 다른 체질에 비하여 간 기능이 좋으므로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30대 이전에 너무 과음한 탓에 40대에 간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체질은 아무 술이나 잘 마시지만 장이 나쁜 경우는 맥주보다는 매실술이 좋다. 과음했을 경우에는 찹차, 울무차, 우거지탕, 못국, 콩나물국 등을 먹고, 특히 운동이나 목욕을 하면서 땀을 많이 내면 도움이 된다.

소양인은 열이 많고 신장 기능이 약한 체질이므로 생맥주가 좋으며, 양주나 고량주류는 많이 마시면 좋지 않다. 만약 양주나 고량주를 마시면 습이나 담이 잘 생겨 소변량이 줄어들게 된다. 과음 후에는 특히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배춧국, 야채즙, 오이냉채, 복엿국 등이 도움이 된다.

태양인은 간이 비교적 약하고 열이 많기 때문에 술이 잘 받지 않지만,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 술은 생맥주가 괜찮은 편이고 소주나 양주 등은 좋지 않다. 소변이 시원하게 나와야 하므로 조갯국, 포도주스, 야채주스 등이 음주 전후에 도움이 된다.

약이 되는 술

우리 조상은 오래전부터 약재를 이용해 술을 담가왔다. 많은 약재가 술을 담금으로써 그 약성이 강화되기도 하고 먹기 좋게 되기도 한다. 술은 상승 작용이 있어 적절히 사용할 경우 약 못지않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



감초술

기침과 목구멍 통증을 가라앉힌다. 한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재 중 하나인 감초는 심한 기침과 목구멍 통증을 가라앉히고 신경통, 생리통, 복통 증세에도 좋은 효과를 낸다.



오미자술

새콤한 맛이 강한 오미자술은 기대하는 약효에 따라 술을 마시는 시간과 방법이 다르므로 꼭 기억해둔다. 식욕을 돋우기 위해서는 하루 3회, 식전에 소주잔으로 한 잔씩 마신다. 그리고 기침, 천식, 피로 증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따뜻한 물을 타서 하루 1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신다.



치자술

치자에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어 노이로제, 신경쇠약, 불면증 등 신경이 예민해서 생기는 증세에 잘 듣는다. 치자로 술을 담가 마시면 이런 약효 외에도 피로 해소, 식욕 증진, 이뇨, 건위 등의 약효도 얻을 수 있다고 전해진다.

글 _ 신현대 한의학 박사

전 16대 대통령 초대 한방 주치의, 경희대학교한방병원장 및 교수,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자연치료센터 소장. KBS 한의학 부문 의료 자문위원이자 보건복지부 한의학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신현대한방 연구소 소장이자 신현대한의원 원장으로 환자와 더 가까이 만나며 한의학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다.

고난의 역사를 이겨내는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

출판인 김언호가 권하는 책, 〈뜻으로 본 한국역사〉

삶을 일으켜 세워준 책

1976년 한길사를 설립해 책을 만들기 시작했으니 올해로 42년째가 된다. 나는 나를 격동하는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한 권의 책’을 만들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만든 책이 3000여 권 되는 듯하다. 이 책들 가운데 한국 현대사를 빛나게 장식하는 사상이 함석헌 선생님의 전집 20권과 저작집 30권, 선집 3권은 정신적 삶을 일으켜 세운 한 장르의 책들이다. 1980년대에 선생님을 직접 뵈면서 선생님의 사상과 정신을 책으로 구현해내는 작업은 나에게 실로 경이로운 일이었다.

동시대를 진동시키고, 동시대인들의 정신을 번쩍 깨어나게 하는 선생님의 글을 읽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우리는 행복했다. 선생님의 글과 말씀으로 이 땅의 젊은이들은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선생님의 글과 말씀은 사상이고 정신이자 문예 작품이다. 선생님이 남긴 글과 말씀은 아시아에 우뚝 서는 장대한 문화유산이다.

나는 1960년대 고교 시절부터 선생님을 읽기 시작했다. 대학 시절에는 선생님의 강연을 들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뜻으로 본 한국역사〉로 교내

책은 인생을 바꾸고, 사람은 역사를 바꾼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책에는 깊이가 있다. 김언호 한길사 대표는 평생 책을 펴내며 파주 출판도시와 헤이리 예술마을을 형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는 한 번의 독서로 끝나지 않고 다시 펼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책 읽기의 기쁨을 느껴보기를 권했다.



독후감 경연 대회에 참가한 바 있다. 엄청난 주제를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책을 제대로 이해했을 리 없다. 그럼에도 감히 독후감 경연대회에 나갔다. 〈사상계〉에 실리는 선생님의 글을 밑줄 그어가면서 읽을 때였다. 고등학생이 선생님의 뜻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었겠느냐만 이런 저런 인연으로 출판물을 시작하면서 선생님의 책을 펴내는 일이 나에게 주어졌다. 선생님의 사상과 정신을 연구한 책들도 펴냈고, 선생님의 책을 함께 읽는 독서 행사도 기획하고 있다.

〈뜻으로 본 한국역사〉는 선생님이 뜻을 같이하는 이들에게 말씀한 내용이다. 원래 제목은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지만, 1960년대 초에 해인사에 머물면서 ‘뜻으로 본 한국역사’라는 제목으로 새로 쓴 책이다. 이 땅의 젊은이들 가슴에 역사의 주체는 누구인가, 역사의 혼은 어디에 존재하는가를 심어주는 내용이다.

선생님은 탁월한 시인이다. 선생님의 글과 강연록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다시 읽어도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가슴 저 바닥에 가득해진다.

나는 1980년대 초반부터 1989년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수시로 만나 뵈고 말씀을 들었다. 언제나 꽃삽을 들고 꽃과 나무를 가꾸시던 선생님은 영원한 청년이었다. 내 삶의 영원한 스승이었다.

책이란 삶과 역사의 지표

한 권의 책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고 대답하는 것이다. 사람답게 사는 지혜는 독서를 통해 가능해진다. 민주적이고 정의로우며 도덕적인 나라와 사회는 책을 쓰고 만들고 읽는 과정에서 구현된다. 한 권의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세상을 향해 반듯하게 걸을 수 있다.

출판사를 운영하며 동서고금의 고전을 번역해내는 ‘한길그레이트북스’를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한길사 창사 40주년을 기념하며 함석헌 선생님의 선집 3권을 기획해 한길그레이트북스 제148·149·150권으로 출판해

냈다. 〈씨얼의 소리〉, 〈들사람 열〉, 〈인간혁명〉, 이 세 권이 그것이다. 나는 한길그레이트북스에 선생님의 책을 올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작업이라고 믿는다. 우리 현대사의 가장 찬란한 사상적·정신적 성찰이 함석헌 선생님의 의해 성취되었다고 생각한다.

선생님의 책들을 이 땅에 사는 젊은이와 이웃들에게 권하고 싶다. 선생님의 아름다운 글과 힘찬 말씀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혼이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한다. 정의로운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뜻으로 본 한국역사〉는 아름답고 정의로운 역사 정신을 가슴에 심어주는 책이다. 함석헌 선생님이 이 책에서 우리 역사를 ‘고난의 역사’라고 했다. 역사는 고난이다! 씨얼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 우리의 희망이 존재한다고 했다. 우리에게 고난을 극복해내는 역사의 지혜, 희망의 역사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책을 읽는 기쁨을 나누고 싶다. ■

〈뜻으로 본 한국역사〉

함석헌 지음, 한길사



함석헌은 1901년에 출생한 사학자이자 인권 운동가, 언론인, 종교 사상가였다. 이 책은 저자가 30대 초반이던 1932~1933년 〈성서조선 聖書朝鮮〉에 연재한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를 토대로 해 1950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1961년에 현재의 제목으로 고쳐 썼으며, 이후 저술 70주년을 기념해 2003년에 어려운 용어와 한문으로 된 문장 등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재편집했다. 우리의 역사가 암흑기에 있을 때 지식인으로서 한국의 역사를 삼국시대부터 한뜻으로 조망해볼 수 있도록 기술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넘어 독자와 만나고 있는 고전이자, 스테디셀러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우리 시대 지식인이 사랑한 책’으로 선정되었으며, 소설가 김훈, 시인 김용택, 미술 평론가 이주현 등 이 시대의 많은 지식인이 추천한 책이기도 하다.



출판인 김언호

1968년부터 1975년까지 〈동아일보〉 기자로 일했으며, 1976년 한길사를 창립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파주출판도시 건설에 참여했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예술마을 헤이리를 구상하고 건설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현재 책 축제 ‘파주북소리’ 조직위원장과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책의 탄생 I · II〉, 〈헤이리, 꿈꾸는 풍경〉, 〈세계 서점 기행〉 등의 책을 펴냈다.

아주 오래된 공포 〈프랑켄슈타인〉

생명을 창조하고 싶어 한 남자, 빅터 프랑켄슈타인. 하지만 피조물은 예상외로 추했고, 그는 괴물을 외면한다. 버려진 괴물은 외로움과 절망에 분노하고 자신을 창조한 인간을 덮친다. 200년 전에 발표된 공포 소설이 한국에서 창작 뮤지컬로 재탄생했다. 탄탄하게 짜여진 극적 드라마와 절창의 보컬이 관객에게 전율을 선사한다.



200년 전에 예고된 과학기술의 딜레마

‘프랑켄슈타인’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다. 목에 커다란 못이 박히고 얼굴에 꿰맨 자국이 있는 창백한 괴물은 1931년 영화 〈프랑켄슈타인〉에서 나온 것이다. 스크린 위에 나타난 섬뜩한 괴물의 이미지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 영화와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모두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2018년은 소설 〈프랑켄슈타인〉 출간 200주년이 되는 해다. 1818년 영국 런던에 사는 열아홉 살의 소녀 메리 셸리가 충격적이고 낯선 소설로 세간을 깜짝 놀라게 했다. 시대를 앞서간 상상력으로 창조된 소설 〈프랑켄슈타인〉은 과학기술과 생명 윤리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과학자가 시체로 만든 무서운 괴물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지금도 공포 소설의 고전으로 손꼽힌다.

종교와 과학이 충돌하던 19세기, 어린 소설가를 사로잡은 것은 과학의 힘을 빌린 생명 창조였다. 신의 영역을 넘본 인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인간이 창조한 피조물은 과연 인간의 뜻대로 움직여줄까? 현대 SF 영화의 단골 소재이자 앞으로 첨단 과학이 마주하게 될 이 딜레마와 생명 윤리 문제는 생각보다 꽤 오래된 화두였던 것이다.

흔히 ‘프랑켄슈타인’을 괴물의 이름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사실 괴물은 이름이 없다. 괴물을 창조한

인간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 소설과 동명의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과학, 의학, 철학을 아우르는 천재이자 스위스 귀족 출신의 주인공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이름에서 제목을 따온 것이다. 빅터는 시체를 이용해 죽지 않는 군인을 창조하는 연구에 사로잡힌다.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소설의 기본 설정은 그대로 가져오되, 그 전개는 무대극에 맞게 더욱 극적인 드라마로 재구성했다.

작품성과 흥행을 모두 잡은 한국 창작 뮤지컬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한국 창작 뮤지컬의 새로운 지평을 연 수작이다. 2014년 초연 당시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 10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어 9개 부문상을 휩쓸었다. 작품성을 인정받아 ‘올해의 뮤지컬’상과 ‘올해의 창작뮤지컬’상을 수상했고, 남우주연상, 여우신인상, 연출상, 음악감독상, 무대상, 음향상, 의상상도 받았다. 2016년에 재연했을 때는 놀라운 흥행 기록을 세웠다. 98%라는 객석점유율과 누적 관객수 24만명을 기록해 한국 창작 뮤지컬의 흥행 저력을 보여줬다. 또 재연의 성공에 힘입어 2017년 대극장 창작 뮤지컬 최초로 일본에 라이선스 수출되어 일본 현지 언론과 관객의 호평을 받으며 흥행했다.

앞선 성공을 바탕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2018년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에서는 2014년 초연 무대의 주인공과 새롭게 가세한 뮤지컬 스타가 열연한다. 철학·과학·의학 천재이자 집념의 연구를 이어가는 주인공 빅터 프랑켄슈타인역은 배우 류정한, 전동석, 민우혁이 맡았다. 소신 있는 군인이자 ‘죽지 않는 군인’을 창조하려는 빅터의 연구에 매료되어 조력자로 나서는 앙리 뒤프레역과 빅터의 피조물인 ‘괴물’ 역은 배우 박은태, 한지상, 카이, 박민성이 맡아 열연한다.

일그러진 집념과 분노, 공포라는 어두운 정서로 점철된 검은 무대를 뚫고 나오는 건 청명하게 울리는 배우들의 노랫소리다. 신에게 외면받은 피조물의 절망이라는 신학적 딜레마, 과학기술로 전능한 인간을 꿈꾼 순간부터 시작된 생명 윤리 문제. 이 섬뜩하면서도 뿌리 깊은 공포를 뮤지컬로 만나는 건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 ■

*** 공연 기간** 2018년 6월 20일(수) ~ 8월 26일(일)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장소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옛 삼성 전자홀)
만 13세 이상 관람가
관람 일자 2018년 7월 5일(목) 오후 8시
문의 1544-1555



〈오블리제 클럽 매거진〉 독자 여러분께 추첨을 통해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관람권(1인 2매)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응모 방법은 97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018년 개정판

미래에셋대우 절세 가이드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세무 전문가들이 필자로 참여해
이들의 풍부한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효율적 절세 전략을 제시한 도서입니다.



01

금융상품과 세금

금융 투자, 세금을 알아야
투자에 성공한다!

02

부동산과 세금

부동산 투자,
절세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03

상속·증여와 세금

상속세와 증여세,
빠른 준비가 정답이다!

* <미래에셋대우 절세 가이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대우 영업점과 고객센터(1588-6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BLIGE
CLUB

글로벌 자산 관리

46 은퇴 설계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한 네 기둥

50 글로벌 이슈/테마 핀테크 fintech, 금융 서비스를 재편하다

54 글로벌 플랫폼 기업 우리 텐센트가 달라졌어요

58 국내 이슈/테마 경기 순환 산업의 사이클, 공급 부족이 주는 기회

62 핫 상품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투자 기회

Global Asset Management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한 네 기둥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게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각각 다르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에 나오는 첫 문장으로, 소설 첫 문장 중 가장 유명한 글귀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필수적인데,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다른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은퇴 생활도 이와 비슷하다.

글 _ 이상건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sg.lee@miraeasset.com



행복한 은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네 기둥이 튼실해야 한다. 돈, 일, 관계, 건강이 그것이다. 돈이 있더라도 가족 관계가 나쁘면 불행하다. 돈이 충분하고 가족 관계가 좋더라도 건강이 나쁘면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다. 더욱이 이 네 가지는 다른 것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다른 것의 결과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돈이 없는 노년일수록 건강이 나쁘다. 소득과 건강 관련한 여러 연구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다는 것이다. 부부나 자녀와의 관계가 나쁘면 인생 후반기에 엄청난 삶의 외로움에 직면해야 한다. 또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각각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금으로 현금 흐름 확보해야

먼저 ‘돈’부터 얘기해보자. 노후 재무 설계의 핵심은 ‘현금 흐름의 극대화’이다. 사망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월 생활비 형태의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한다. 일 또한 현금 흐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물론 충분한 노후 자금을 확보한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그동안 쌓아놓은 자산을 활용해 필요 생활비를 모두 조달할 수 없다면 일을 해서 적은 소득이라도 현금 흐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가장 위력적이고 검증된 수단은 연금이다.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노후 생활 시스템 중 아직까지 연금제도를 대체할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상적이다. 게다가 연금은 절세 차원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후 관련 투자 상품에는 세제 혜택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 IRP, 연금저축계좌는 능력이 닿는 범위에서 최대한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최근 정부가 연금 상품에 접근하는 방식은 일시금보다 매월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에 세제 혜택을 더 주고 반대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는 식이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은 연금 형태로 인출하면 30%의 세금을 줄여준다. 반대로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할 때 일시금으로 돈을 빼내면 가산세를 물린다.

젖은 낙엽족과 퇴직자 증후군

‘일’은 돈과 건강 그리고 관계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더 낫다는 연구 결과는 수없이 많다. 일하는 노년의 삶이 인간관계도 더 풍부하게 만든다.

우리보다 고령화가 앞선 일본에서는 ‘퇴직자 증후군’, ‘젖은 낙엽족’ 같은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퇴직자 증후군은 퇴직 이후에 주로 남성이 겪는 정신적 어려움을 뜻한다. 특히 남성은 일하고, 아내는 살림하는 가정의 분업 구조 속에서 살아온 남성일수록 이러한 어려움의 정도가 심하다고 한다.

남성은 주로 일을 통해 인간관계를 맺는다. 일을 매개로 만나는 사람과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며 관계를 형성한다. 이들에게 퇴직은 인간관계의 거대한 단절로 이어진다. 반면 수평적 인간관계에 능한 여성은 남성과 달리 관계의 단절이 거의 없다. 만일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남성이 아내에게 심하게 의존할 경우, 젖은 낙엽족이 된다. 젖은 낙엽족이란 비에 젖은 낙엽이 잘 쓸리지 않듯이 아내에게 딱 달라붙어 생활하는 남편을 의미하는 단어다.

일은 삶의 의미와도 연결된다. 현대 행복심리학에서는 기쁨이나 즐거움 같은 주관적 안녕감^{wellbeing}뿐만 아니라 보람 같은 삶의 의미나 가치 차원의 감정도 행복의 원천으로 보고 있다. 일을 통해 돈을 벌거나 보람을 찾는 것도 모두 바람직한 노후 생활을 이루는 기둥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건강’은 더 강조할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한 노후 생활의 기둥이다. “모든 것의 주춧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건강은 신체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노년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보장성 보험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건강과 재산의 이중 피해를 막는 방어막이라는 관점으로 보험을 바라봐야 한다



리그전 vs 토너먼트

세상의 모든 게임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다.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것은 게임의 규칙이다. 투자를 게임이라고 보면, 두 가지 규칙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리그전으로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처럼 1년 동안 여러 팀과 여러 번 경기를 치른 후 승률에 따라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또 하나의 방식으로는 토너먼트가 있다. 한 번이라도 패배하면 탈락하는 구조이다. 그래서 토너먼트는 다음이 없다. 한 번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인 것이다.

은퇴 생활은 리그전이라기보다 토너먼트에 가깝다. 물론 한 번의 실패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만은 확실하다. 네 가지 기둥 중 하나가 흔들리면 당장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안정성은 급격히 훼손될 수 있다.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네 가지 기둥을 각각 튼실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 상기 콘텐츠는 고객의 자산 관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목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투자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핀테크^{fintech}, 금융 서비스를 재편하다

초기 핀테크 산업은 은행, 증권회사 등 대형 금융기관의 IT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후 온라인 쇼핑의 이용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고객에게 편리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IT 기업의 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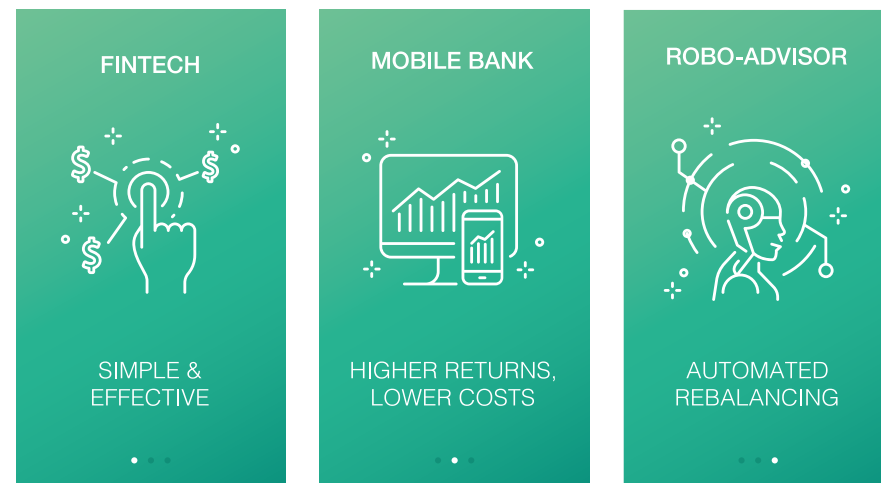
글 _ 정우영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컨설팅팀 선임매니저
wyjeong@miraeasset.com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ial}과 IT^{information technology}를 합성한 신조어로, 넓게는 정보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업을 의미하며, 좁게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금융 거래를 뜻하는 단어다. IT, 온라인 쇼핑, 플랫폼 기업이 금융결제와 연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핀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편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우버^{Uber}, 에어비엔비^{Airbnb} 같은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이 등장하게 되었고, 플랫폼을 무기로 전통 산업의 강자를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우버의 기업 가치는 720억 달러(약 72조원)로 벤츠를 생산하는 독일의 다임러^{Daimler AG}(시가 총액 850억 달러)를 턱밑까지 추격하며 핀테크의 성장을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기술에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을 영위하는 아마존과 알리바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텐센트와 카카오 등은 실생활과 연계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핀테크 분야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편리함과 차별화로 고객을 사로잡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7월 출범한 이후 약 5개월 만에 예금과 대출금이 10조원에 육박하는 기염을 토했다. 가입자는 500만 명을 넘어서며 시중은행의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핀테크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함이다. 기존의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나,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해 고객을 사로잡고 있다.

핀테크의 다른 장점은 차별화다.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시중은행과는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객의 금융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하면 기존의 신용 평가사의 신용 등급을 활용하는 방식에 비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신용도의 세분화가 가능해 연체율 관리가 좀 더 정교해진다. IT를 기반으로 비용을 낮추고, 낮아진 비용을 통해 고객에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대출금리와 높은 예금 금리를 제공하며 기존 금융 서비스와 가격적인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 AI를 기반으로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VIP 고객만 누리던 PB^{개인 자산 관리} 서비스를 다수의 고객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뱅크 플랫폼에 로보어드바이저 기능을 추가해 금융서비스의 질적인 차별화도 손쉽게 이룰 수 있다.

금융 서비스의 무한 경쟁 체제 돌입

지난해 4월과 7월 국내 최초 인터넷 전문 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설립된 후로 지금까지 가입자 수와 여·수신 금액이 급성장하며 시중은행과의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앞서 2000년부터 인터넷 전문 은행이 설립되기 시작해 8개 정도의 주요 인터넷 전문 은행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꾸준히 외형을 확장하며 시중은행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도 이와 다르지 않으며 중국은 텐센트, 알리바바의 주도 아래 시작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기반으로 인터넷 전문 은행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발전 중이다.

핀테크 산업에 뛰어든 IT 기업은 은행의 전통적 사업 영역인 국내의 송금, 대출, 적금뿐 아니라 자산 관리, 클라우드 펀딩, 개인 간 대출 거래 중개, 보험, 모바일 결제, 금융 데이터 분석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차별화한 서비스를 무기로 기존 금융 산업을 재편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는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강자로 군림하며 유통산업의 기존 기업을 압도한 모습을 보았다. 핀테크 기술은 이제 막 성장의 초입에 들어섰으며, 기존 금융 산업을 재편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새로운 핀테크 기업이 아마존처럼 성장할 수도 있고, 구글·아마존·알리바바·텐센트 등의 IT 강자들이 핀테크 시장까지 장악할 수도 있다. 현재는 개별 기업들이 차별화한 서비스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경쟁 체제에 돌입했으나 몇 년 안에 시장을 독식할 강자가 나타나 금융 산업을 재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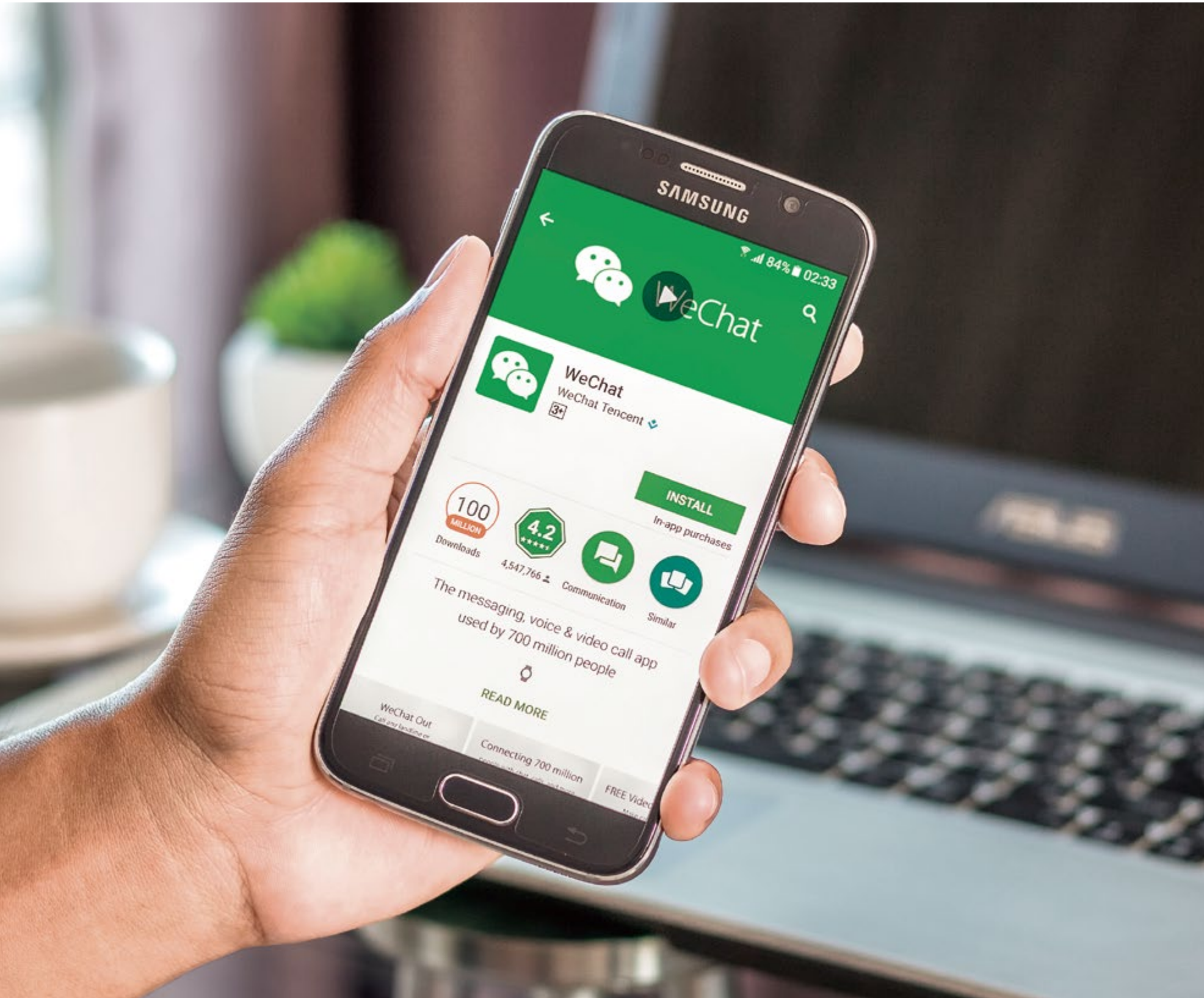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와 관련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삼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매매를 권유한 금융 투자 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 분석 자료는 당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 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 분석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텐센트가 달라졌어요

지난해 9월 중국 시안에서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 이름에 얽힌 사건이 온라인상에서 큰 가십거리가 되었다. 아빠가 아기 이름을 중국의 대표 게임인 '왕자영요'라고 지은 것이다. 게임광인 아빠 때문에 불행히도 왕자영요라는 이름을 갖게 된 아기의 성별은 설상가상 여자다.



글 _ 여태경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컨설팅팀 선임매니저
taekyung.yeo@miraeeasset.com



중국의 대표 게임 회사, 텐센트

중국 대표 게임 퍼블리셔가 바로 텐센트다. 텐센트는 중국 1위이자 세계 1위의 게임 퍼블리셔로 중국 시장에서 게임 사업으로 큰 수익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게임 개발사에 대한 투자와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분 투자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즐겨 하는 클래시브클랜과 클래시로얄을 만든 슈퍼셀과 리그오브레전드를 만든 라이엇게임즈 등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넷마블게임즈, 카카오, 네시삼십분, 파티게임즈 등 텐센트가 투자해 주요 주주로 등극한 한국 게임 개발사만 해도 7개에 달한다. 또한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텐센트의 전체 매출 가운데 50% 이상이 게임 사업에서 발생하다 보니 많은 투자자가 텐센트를 게임 회사라고 평가해왔다.

게임보다 더 중요한 핵심 사업, SNS 플랫폼

하지만 향후에는 텐센트 사업 구조의 핵심인 SNS 플랫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텐센트는 1998년 마화텡(馬化騰, Ma Huateng)이 창업하고 5인방을 중심으로 회사를 키워나가며 중국 최고의 SNS 플랫폼을 목표로 성장해왔다. 또 중국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국내외 SNS 플랫폼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며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사업 초기에는 QQ메신저라는 SNS 플랫폼을 활용한 수익 모델이 마땅치 않았다. 돈이 필요해 QQ메신저의 심벌인 펭귄을 캐릭터업체에 빌려주고 작은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텐센트의 첫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바로 게임 사업이었다. 중국의 게임 산업이 고속 성장함에 따라 텐센트 역시 게임 사업에 뛰어들었고, 강력한 플랫폼 유저를 바탕으로 출시하는 게임 다수를 성공시키며 중국 게임 산업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중국인의 소득·구매력 상승과 함께 중국의 온라인 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 산업은 온라인에만 머물지 않고 온·오프라인을 이어주는 중국 O2O 산업으로 이어져 수많은 중국의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키며 급성장하고 있다. 콘텐츠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용자 10억 명을 거느린 중국의 카카오톡인 위챗과 8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QQ메신저의 파워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떼를 거느린 농장주가 된 것이다.

SNS 플랫폼의 파워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위에원 그룹 阅文集团, China Literature이다. 중국에 인터넷 소설 인기가 높아지자 텐센트는 2013년 텐센트문학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다. 텐센트문학이 급성장하자 위에원 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2017년 홍콩 증시에 상장시켰다. 자회사를 설립한 지 4년 만에 초고속 성장과 IPO가 가능했던 배경은 인터넷 소설 구독자를 유입할 수 있는 SNS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텐센트 모바일 결제 시스템, 위챗페이

텐센트는 위챗을 기반으로 약 8.5억 명이 사용하는 중국 최대 모바일 결제 시스템 위챗페이도 보유하고 있다. 결제 규모 면에서는 알리페이에 이어 2위, 사용자 면에서는 알리페이의 2배 수준인 압도적 1위이다.

중국인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일상생활 내 거의 모든 결제를 할 수 있다. 8.5억 명의 사용자가 위챗페이로 결제할 때마다 우리나라 카드 수수료 같은 결제 수수료가 수익으로 이어진다. 물론 수수료율은 상당히 낮지만 엄청난 사용자가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이용자의 증가, 소득수준과 구매력이 상승에 따른 이용 금액 증가, 텐센트의 투자 등으로 연계된 다양한 콘텐츠는 위챗페이 성장의 훌륭한 모멘텀이 되고 있다.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텐센트의 변화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매출액 비중의 55%(1028억 위안 중 566억 위안)가 게임 사업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2016년 처음으로 게임 사업 매출 규모가 전체 매출 비중 가운데 46.6%(1519억 위안 중 708억 위안)로 감소 하더니 2017년에는 41.1%(2377억 위안 중 978억 위안)까지 크게 줄어들었다. 이를 보고 텐센트의 게임 사업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투자자도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게임 사업 매출액의 연간 성장률은 각각 26%, 25%, 38%로 2017년이 가장 높다.

이제부터는 오히려 시각을 바꿔서 텐센트의 SNS 사업, 온라인 광고 사업의 성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7년 SNS 서비스와 온라인 광고 사업의 매출 성장률은 각각 50% 이상으로 게임 매출 성장률보다 10%p 이상 높은 고속 성장을 기록했다.

게임 사업 중심으로 성장했던 과거의 텐센트, 그리고 SNS 플랫폼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이 기대되는 앞으로의 텐센트, 이 같은 텐센트의 변신을 즐겁게 바라보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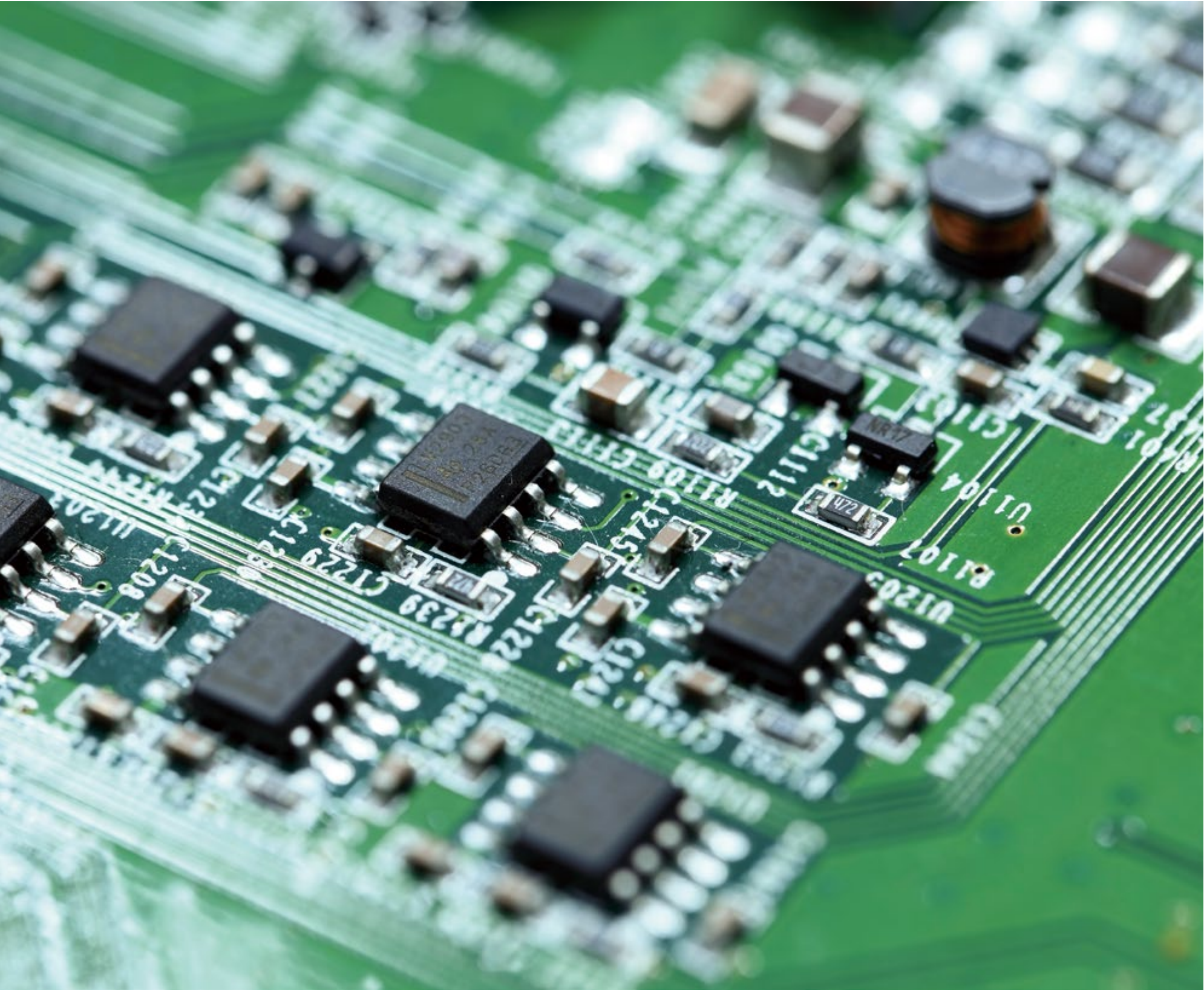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와 관련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삼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매매를 권유한 금융 투자 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 분석 자료는 당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 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 분석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경기 순환 산업의 사이클, 공급 부족이 주는 기회

대부분의 제조업에는 일정한 사이클이 존재하고, 기업은 업체 간 혹은 고객의 ‘수요와 공급’에 맞춰 제품 생산의 증가나 감소 등을 검토한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움직임에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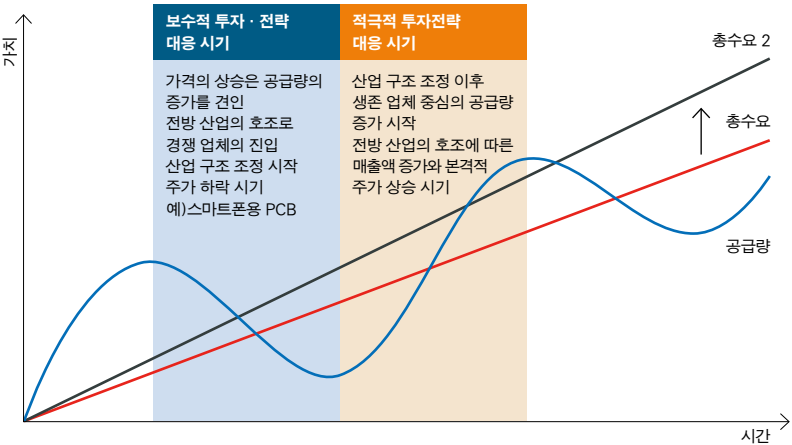
글 _ 박성용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컨설팅팀 선임매니저
sungyong.park@miraeeasset.com



경기 순환 산업 핵심 업체의 공급량 증가 시기가 적기

경기 순환 산업에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경기 사이클이 존재한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약 7~10년 주기를 두고 움직이며, 그 과정에서 업체별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아닌 기업이 가려진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고 투자 여부를 판별해내야 할 필요가 있다.

경기 순환 산업의 수요·공급 변화와 투자 전략 시기



자료 :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컨설팅팀

위 그림을 살펴보자. 어떤 산업에서 총수요가 경제성장에 따라 일정한 수준으로 증가한다는 전제 아래 ‘공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격차로 인해 투자자로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총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이 일어나면 해당 산업의 경쟁력 있는 기업은 공급량 증가로 매출 증대, 주가 상승을 경험한다는 말이다.

스마트폰용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 회로 기판)업체들을 예로 들어보자. PCB 업체는 2008년부터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한 스마트폰 산업으로 인해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는다. 그러나 기술적 진입 장벽이 특별히 높지 않다 보니 경쟁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경쟁의 심화, 판매 단가의 급락, 산업 구조 조정의 어려움을 한 몸에 받게 된다. 결국 상당수의 업체가 쓰러지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일부 업체만이 새롭게 형성된 스마트폰 제2의 성장기를 맞아 도약하게 된다.

투자자는 바로 ‘구조 조정 이후 생존 업체 중심의 공급량 증가 시기’에 주목해야 한다. 이 시기가 바로 적극적인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 때이다. 만약 총수요 자체가 더 높아지면(총수요 → 총수요 2) 공급의 부족은 더 오래가게 된다.

IT와 헬스케어 산업에서 찾는 공급 부족의 기회

MLCC^{Multi Layer Ceramic Condenser, 적층 세라믹 콘덴서}는 대부분의 전자 제품에 사용하는 부품으로 전류를 축적하고, 필요에 따라 안정적으로 흐름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글로벌 MLCC 시장 규모는 향후 10년 이내에 약 20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IT 기기의 고성능화와 슬림화 진행이 성장의 주요인이다. 여러 부품을 적용한 IT 기기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전자파 간섭 현상을 차단하려는 수요가 더욱 늘어나기 때문이다.

자동차도 전자화되고 전기차와 자율 주행차 도입이 다가옴에 따라 MLCC 사용량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사양의 MLCC는 기술적인 진입 장벽까지 형성되어 있어 후발 업체들의 진입 자체가 쉽지 않다. 물론 판매 단가도 일반 MLCC보다 약 2배 이상 높다.

일반 스마트폰에는 약 800여 개의 MLCC를 사용하고, TV에는 2000개, 자동차에는 3000개, 전기차에는 1만2000개 정도의 MLCC가 소요된다. 그러나 글로벌 MLCC업체는 한정적이며 해당 업체의 과점적 형태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무라타, TDK 등의 업체에서 공격적으로 자동차 전장용 MLCC에 대응할 계획이며, 국내 삼성전기와 삼화콘덴서도 필요에 따라 설비를 증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SiC링^{Silicon Carbide Ring}은 실리콘과 카바이드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화합물로,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웨이퍼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데 사용한다. SiC 포커스링이라고도 한다. 기존의 Si보다 수명이 길고 수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반도체의 미세화 공정이 진행될수록 SiC링의 수요도 증가한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 업체들도 향후 공격적인 증설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 SiC링업체는 전방 산업의 호조에 편승할 수 있다.

하지만 SiC링을 제조하는 업체가 많지 않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미국의 쿠어스텍, 일본의 페로텍, 한국의 티씨케이나 하나머티리얼즈 정도가 공급하고 있다. 특히 SiC링은 소모성 부품이므로 소재 산업의 성격에 해당하는데, 제품의 교체 주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안정적인 과점적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반도체 미세화 공정 진행으로 수요는 증가하나 공급은 제한적으로 역시 ‘공급 부족’ 상태다.

수액 제제는 신체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을 정맥 혈관을 통해 공급한다. 수액은 크게 기초 수액과 영양 수액, 특수 수액이 있는데 최근에는 영양 수액의 수요 증가로 주목받는 기업이 있다. 수액 제제의 경우 혈관에 직접 투여하므로 공정상의 엄격한 관리가 필수이며, 난이도가 높아 진입 장벽이 형성되어 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퇴장 방지 약품에 포함된 수액제가 9%의 유통 마진만 인정받았으나, 최근에는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JW생명과학은 국내에서 높은 점유율의 영양 수액 ‘위너프’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까지 추진하고 있다. EU-GMP 승인을 거쳐 최종 판매 허가까지 가능해 중·장기 수익성 개선을 기대한다. 수액 제제 역시 높은 기술적 진입 장벽과 규제로 인해 역시 ‘공급 부족 현상’이 예상된다.

공급 사이클과 투자 기회

위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수요 증가 환경 속에서 높은 진입 장벽과 공급 부족으로 호황을 누리는 업체가 사실 많지 않다. 그러나 IT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높은 기대 수명은 중·장기적으로 관련 산업의 성장 발판이 되고, 관련 업체의 높은 수익성과 주가 상승은 담보될 수 있다. 투자자는 공급 부족 상황에서 시장이 더욱 확대되는 이러한 산업을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와 관련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삼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매매를 권유한 금융 투자 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 분석 자료는 당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 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 분석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투자 기회

이미 일상생활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거대한 변화는 실LEM과 동시에 두려움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은 분명 기회가 될 수 있다.



글 _ 전유리 미래에셋대우 상품솔루션팀 선임매니저
youri.jun@miraeeasset.com



4 대 1.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상대로 거둔 결과다. 기술이 인간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이후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틱스와 같은 다양한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화를 의미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차 산업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4차 산업에 관련된 기술 분야와 기업은 실로 매우 다양하다. 해당 산업 전문가가 아닌 이상 4차 산업중 어떤 분야가 성장성 혹은 위험이 높은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게다가 성장 초기 단계의 산업이 많기 때문에 실패하는 기업도 많기 마련이다. 이럴 때 적합한 투자 방법은 유망 분야와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것이다. 성장성이 높고 혁신적인 분야에 투자하는 만큼 전문가가 운용하는 금융 상품을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ETF를 활용하면 다각도로 접근이 가능

관련 투자 상품으로 미래에셋글로벌4차산업EMP펀드를 고려해볼 만하다. EMP^{ETF} Managed Portfolio란 자산의 50% 이상을 ETF에 투자하는 전략의 상품을 의미한다. ETF를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폭넓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4차 산업과 같이 넓은 분야에 투자할 때 유리하다. 미래에셋글로벌4차산업EMP펀드는 4차 산업과 관련된 글로벌 혁신 기업 ETF에 주로 투자한다. 4차 산업은 신성장 산업이 많고, 속성장 융·복합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 해당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운전자 없이 스스로 운전이 가능한 자율주행차를 예로 들면 구글 같은 IT 기업뿐 아니라 벤츠 같은 자동차 회사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련 기업들이 여러 분야에 분포되어 있는데 다 해당 기업의 매출에서 자율주행은 극히 일부인 경우가 많다. A라는 기업의 매출에서 자율주행 관련 매출이 2%에 불과하다면 이 기업에 투자해야 할까? 이러한 기업들을 찾아 투자하려면 대상 기업 수도 크게 늘어나 엄청난 자금이 소요될 것이다. 이때 ETF를 활용하면 이러한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세부 분야별로 다양한 ETF가 출시되어 있어 쉽게 유망 분야에 접근할 수 있다. 또 이러한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 위험을 줄이면서 분산 효과를 높일 수 있다.

ETF와 자산 배분에 강점을 지닌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미래에셋은 ETF 운용 규모 세계 21위 운용사로 한국, 캐나다, 호주 등 6개국에서 240여 개의 ETF를 운용 중이다(출처: 미래에셋 자산운용 2017년 11월 말 NAV 기준). 다양한 상품 라인업과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ETF를 활용한 상품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미래에셋글로벌4차산업EMP펀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이러한 노하우가 담긴 상품이다.

안정성 강화를 위한 안전핀, 보조 전략을 활용하자

테마형 상품에 투자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우려는 해당 테마에 대한 전망이 단기적으로 악화될 경우다. 4차 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테마인 것은 분명하지만, 글로벌 자금 흐름이나 규제, 이슈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글로벌4차산업EMP펀드는 단기적으로 전망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보조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성장하는 이머징, 인프라 개발, 인구구조와 같이 잠재적 성장성을 지닌 테마를 선정하여 관련 ETF에 일부 투자하는 식이다.



4차 산업이라는 테마에 주로 투자하되,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기 테마에 일부 투자함으로써 펀드의 변동성을 줄이고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시장 상황에 따라 4차 산업과 보조 전략의 비중을 조절하면서 중기적으로 안정성을 강화했다.

스마트폰은 불과 10년 만에 인간의 생활 패턴을 크게 바꾸어놓았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은 더욱 획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분명 기회가 될 것이다. 미래에셋글로벌4차산업EMP펀드는 분산 효과를 높이고 서브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장기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펀드와 유사한 전략으로 운용되는 랩 어카운트도 출시되어 있어 투자자의 상황에 맞게 가입이 가능하다. 다가올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상품이다. ■

상품명	미래에셋글로벌4차산업EMP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판매 방법	제4(5)영업일 기준자로 제8(9)영업일에 대금 지급[(0)17시 경과 후]
선취 수수료	종류A : 1.0% 이내
총보수	종류A : 연 1.23%(운용 연 0.5%, 판매 연 0.68%, 신탁 연 0.03%, 사무신탁 연 0.02%)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연 0.61% 추정) 등 추가 비용 발생
환매 수수료	없음

상품명	Best Selection 글로벌 자문형 랩어카운트(글로벌4차산업EMP)
투자 일임 수수료	일반형 연 2.4%(분기 0.6% 후취), 혼합형 연 1.2%(분기 0.3% 후취) + 성과 보수(투자자 개별 협의에 따름), 성과형 성과 보수(투자자 개별협의에 따름)
위탁 매매 수수료	국내 위탁 매매수수료 없음(단, 해외 주식[ETF] 투자 시 매매에 따른 거래세 및 해당 상품의 약관·설명서에서 정한 보수, 환전 수수료 및 현지 Broker fee 등 당사에 귀속되지 않는 세금 및 비용은 고객 별도 부담)

● 당사는 이 금융 투자 상품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 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 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 투자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금융 투자 상품은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랩어카운트 계약 전에 투자 대상, 운용 내용,투자 위험, 수수료 등에 관한 약관, 계약 권유 문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외화 자산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랩어카운트는 위탁 매매 수수료는 없으나, 금융 투자 상품 매매 시 해당 상품의 약관, 설명서 등에서 정한 보수, 수수료 등의 비용 등은 고객님의 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보수, 수수료 외에 증권 거래 비용, 기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을 잘 아는 미래에셋대우가 해외주식거래와 글로벌랩도 잘합니다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강력한 글로벌 리서치가 있습니다. 글로벌을 잘 아는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하십시오.

글로벌 주식거래·글로벌 랩어카운트

- 24시간 계좌 개설·해외투자 전용 주문데스크 운영
- 1:1 맞춤형 글로벌 자산관리 랩서비스
- 해외주식 매매차익·랩수익 한도없이 분류과세 적용

Tiffany & Co.

Jiangsu Hengrui Medicine

Tencent

Premier Global 랩어카운트

Amazon

Alibaba

Goldman Sachs

Google

Netflix

NVIDIA

Microsoft

Apple

[미래에셋대우 고객센터 1588 - 6800]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등 외화자산은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거래시 수수료는 온라인 0.25~0.45%, 오프라인 0.50~1.00%(국가별 거래수수료 상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랩어카운트 서비스의 수수료는 홈페이지 및 영업점을 통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랩어카운트의 위탁매매수수료는 없으나,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해당 상품의 약관, 설명서 등에서 정한 보수, 수수료 등의 비용은 고객님의 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파트너 -
MIRAE ASSET
미래에셋대우

OBLIGE
CLUB

어드바이저리

68 절세 가이드 은퇴 후 퇴직금 운용,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

70 부동산 가이드 규제에 막힌 재건축 투자, 리모델링으로 선회할까?

72 법률 클리닉 동의 없는 녹음, 어디까지 허용될까?

Advisory



은퇴 후 퇴직금 운용,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

2016년 기준 기대 수명은 평균 82.36세(남자 79.3세, 여자 85.41세)로 최근 5년 동안 약 1.7세가 증가했다. 이처럼 인간의 기대 수명이 점차 길어짐에 따라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누구나 인생 제 2막을 보다 행복하고 풍요롭게 보내고 싶어 한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거액의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가 은퇴 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퇴직금의 운용 방식에 따라 세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자.



글 _ 박철흥 미래에셋대우 연금컨설팅팀 세무사
chulheung.park@miraeeasset.com

“올해 만 55세로 35년 직장 생활의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받게 될 퇴직금은 위로금을 포함해 4억원이고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3000만원인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할지, 연금 계좌에 예치하여 연금을 수령할지 고민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다면 퇴직소득세는 당장 내지 않는다. 매번 지급받는 연금의 비율만큼만 나누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또한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를 절세할 수 있고,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은 일정한 경우 3.3~5.5%의 세금만 내면 된다. 반면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퇴직금 전부를 지급받는다면 퇴직소득세는 바로 징수한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내야 하고 임대료는 경우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종합과세된다.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로 더 유리한 노후 소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음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절세 혜택을 상회하는 수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임대차계약 조건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24만원인 사무용 오피스텔의 투자를 제안받았다. 투자 금액은 5억원이고 부족한 자금은 연 5.12%로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본인은 만 62세부터 지급되는 월 150만원의 국민연금 외에는 소득이 없다.’

은퇴 후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건물의 유지관리비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세금 및 공과금 등을 따져보아야 한다. 그리고 향후 투자한 부동산 가격의 동향도 함께 살펴보아야 전체 생애 주기 측면에서 현금 흐름의 유불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 금액은 취득세 4.6%를 포함해 5억2300만원이고, 이로 인해 포기하게 되는 퇴직소득세 절세액은 900만원*1이다. 부족액 1억3300만원*2을 대출로 충당한다면 월 이자 비용은 약 57만원*3이고, 공실 기간은 없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매년 발생할 임대 사업소득세를 월 환산하는 경우 약 4만원*4으로 계산된다. 부동산 투자로 인해 기대되는 월세 124만원

은 세전 연 수익률이 약 3.1%이지만,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과 종합소득세를 고려한 매월 순소득은 약 63만원으로 약 1.6% 수준이다. 부동산 소유권자로서 발생하게 되는 보유세, 건강보험료, 유지관리비 등을 감안하는 경우 순 소득액은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참고 예시]

해당 부동산 취득가 액 대비 기준 시가는 70% 수준이고, 건물분 가치는 40% 수준인 경우

* 건강보험료 등 : 월 24만원 [= (재산 731점 + 소득 466점) × 183.3원 × (1 + 장기요양보험료율 7.38%)]

* 재산세(건물분) : 연 25만원 [= 기준 시가 3억5000만원 × 건물분 40% × 공정 시장 가액 비율 70% × 0.25%]

유사한 조건으로 연금을 매월 63만원*5씩 기대 수명인 82세까지 수령하되, 연금 계좌가 기대 수익률 연 3.1%*6로 운용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82세가 되는 해에 연금 계좌 잔고는 약 5억 8,128만원이 된다. 해당 연금 계좌의 잔액이 상속 등의 원인으로 전액 인출되는 경우 약 2262만원*7의 세금을 공제한 약 5억5866만원이 세 순 자산이 된다.

만약 부동산 투자가 이보다 유리한 현금 흐름을 가지려면 시가로 상속되는 것을 가정*8할 경우 27년 후 46.8%*9를 상회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어야 하다. 만약 ‘참고 예시’의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수치를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 요구되는 최소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77.5%를 초과하기 때문에 미래 부동산 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더욱 정밀하게 판단해야 한다.

상기 사례에서는 매월 213만원(국민연금 150만원, 퇴직금 운용 소득 63만원)을 노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퇴직금 이외에 다른 소득 또는 재산이 없고, 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자녀의 결혼 등으로 특정 시점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우려된다면 연금 계좌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한 월 임대료 이외에 손에 쥐게 되는 현금이 없다. 따라서 유동성 확보 방안이 담보대출로 제한적이지만, 연금 계좌를 운용하는 경우 일정한 절세 혜택을 유지하면서 월 수령액을 조절하거나 자유롭게 목돈을 찾을 수 있다. 더불어 재취업에 성공해 소

정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부동산 임대료 수입에 대한 세금은 더 증가할 수도 있다. 근로소득과 임대 사업 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적용될 누진세율이 높아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은퇴 후 노후 대책으로 막연하게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경우가 빈번하다. 부동산 취득은 세금과 공과금, 건강보험료, 관리비, 예상 지가 상승, 예상 공실률 등 그 어느 자산보다 고려할 것이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전 기대 수익률만으로 투자했다가 기대에 미달하는 소득을 얻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매력적인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제안받았을 경우 반드시 연금 계좌를 운용하는 경우에 비해 얼마나 유리한지, 유리한 만큼 노력을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철저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구분	수익형 부동산(비주거용)	연금 계좌
투자 시	퇴직소득세 일시 징수 취득세 4.6%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없음
운용 시	사업소득세 6.6~46.2% 재산세 0.2~0.5%	퇴직금 :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 운용 수익 : 연금소득세 3.3~5.5% (연 1200만원 초과 시 6.6~46.2%) 없음
처분 시	양도소득세 6.6~46.2%	퇴직금 : 잔여 퇴직소득세의 100% 운용 수익 -연금 수령 : 연금소득세 3.3~5.5% (연 1200만원 초과 시 6.6~46.2%) -연금 외 수령 : 기타 소득세 16.5%

*1 퇴직소득세 3000만원 × 감소를 30%

*2 부동산 취득 필요 자금 5억2300만원 -

세후 퇴직금 3억7000만원 - 보증금 2000만원

*3 1억3300만원 × 5.12% [2018년 5월 기준 K은행 모기지론 5년 고정 금리 평균 이자율 참고] ÷ 12개월

*4 [((124만원 × 12개월) × (1 - 단순경비율 41.5%)) × 누진세율 6.6%] ÷ 12개월 : 종합소득공제 고려 안 함

*5 세전 67만원 × (1 - 퇴직소득세 실효 세율 5.3%)

*6 2018년 3월 기준 미래에셋대우 IRP 비원리금 보장 상품 과거 5년 평균 수익률 참고

*7 퇴직금 잔액 1억7620만원 × 퇴직소득세 실효 세율 5.3% + 운용 수익 4억506만원 × 원천세율 3.3%

*8 부동산 상속 후 현금 환가 시 양도소득세 영향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기 위함

*9 부동산 처분 후 채무 상환 시 순현금 흐름 목표액 = 5억5866만원(연금 계좌 전액 인출 시 잔고 동일액)
▶ 부동산 가격 목표 상승률 = {(순현금 흐름 목표액 5억5866만원 + 대출금 1억3300만원 + 보증금 2000만원 + 상속·취득세 2320만원) / 최초 투자액 5억원} - 1



규제에 막힌 재건축 투자, 리모델링으로 선회할까?



글 _ 유명은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선임부동산컨설턴트
meyoo@miraeasset.com

리모델링은 자원 낭비와 환경 영향이 적고, 공동주택의 수명을 늘려 철거형 정비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재건축 대안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정권 변화에 따라 냉·온탕을 교차하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는 수직 증축 허용, 세대수, 면적 증가 완화 등 꾸준히 완화 추세에 있다. 투자 대안으로서 리모델링의 가능성을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 비교를 통해 알아보자.

재건축 규제 강화, 리모델링엔 인센티브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안전 진단 통과 기준도 재건축에 비해 낮아(B등급 이상, 재건축은 D등급 이상 조건부)에 추진이 가능하다.

기존 자산을 개량하는 형태이기에 위험 논란까지 불거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리모델링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일반 분양을 통해 일부 사업비에 대한 충당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과정 중 언제라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금성 측면에서 유리하다(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이후 양도 불가). 사업 속도 측면에서 사업 방식의 결정 및 소유 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기간은 가능하기 어렵지만 구역 지정, 추진위 설립,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등의 단계 없이 시·군·구청장의 행위 허가나 총회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리모델링, 재건축, 1 대 1 재건축 비교

구분	리모델링	재건축	1 대 1 재건축
허가 연한	15년	30년	30년
소형 주택 의무 비율	없음	전용 85㎡ 이하 60% 이상 건설	일반 분양분은 전용 85㎡ 이하 공급
임대주택 건설	없음	선택 사항 (법적상한용적률-정비계획용적률) *30~50%에 의해 지은 소형 주택 공공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선택 사항 (법적상한용적률-정비계획용적률) *30~50%에 의해 지은 소형 주택 공공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초과 이익 환수	없음	적용 1인당 평균 이익 3000만원 이하 면제. 1인당 평균 이익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금액에 따라 차등 환수	적용 일반 분양분 없는 경우도 개발 후와 개발 전 전체 자산의 변화를 평가하여 부과하므로 분담금 발생 가능. 단, 일반 분양분 축소 및 사업비 증가로 최소화 노력
일반 분양	총 세대수의 15%	용적률 한도 내 세대수 증가 가능	전용면적의 30% 내에서 조합원 주택의 면적 증가분 외 분양 가능 (전용85㎡ 이하로 공급)
용적률 인센티브	법적 용적률 넘어서는 범위에서도 최대 3개 층, 전용면적 30% 이내에서 증축 (15층 미만은 2개 층, 85㎡ 미만은 40%까지 증축 가능)	(법적상한용적률-정비계획용적률)로 개발된 면적 중 임대주택 설치 제외분 증가 용적률의 50~70%	(법적상한용적률-정비계획용적률)로 개발된 면적 중 임대주택 설치 제외분 증가 용적률의 50~70%

자료: 미래에셋대우 수정, 부동산114(주)

법적 용적률을 넘어선 규모로 개발 가능

상기한 것 외에 리모델링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재 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에 근접한 범위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면적 증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리모델링의 증축 가능 면적을 기존 전용면적의 30%(전용85㎡ 미만은 40%)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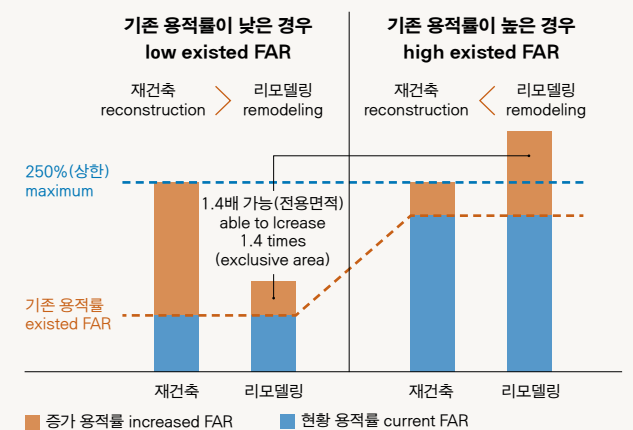
면적을 포함하면 그 이상의 면적 증가가 가능하다. 실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리모델링 추진 사례를 보면 용적률 증가 규모가 기존 용적률의 1.45배였다. 이에 기존 용적률이 다소 높은 단지, 예를 들어 3층 일반 주거지역 내 기존 용적률이 190% 이상인 경우 현행법상 재건축에 비해 더 많은 면적의 증가가 가능하다(법적상한용적률 300%, 25% 기부채납, 리모델링을 통해 1.45배 증가 가정).

자산가치 개선에 한계 있지만, 재건축 규제의 반사이익 예상

다양한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은 어디까지나 기존 건축물을 유지하며 이뤄지는 개량 행위다. 평면, 단지 설계의 한계로 기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개발된 단지의 평당 단가는 신축 아파트의 70~85% 수준에 머물러 있다. 많은 혜택에도 좋은 입지의 단지들이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을 선호하는 이유다.

한계는 분명하지만 최근 복층형 평면 도입 등 사업 단지 별로 개선 노력이 이뤄지고 있고, 안전성 논란으로 유예된 내력벽 철거에 대한 논의도 2019년 2월 이후 재개될 예정이다. 노후화된 기성 시가지의 재생 및 재활용 이슈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주된 테마다. 리모델링의 강점과 함께 재건축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투자 대안으로서 리모델링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

용적률 증가 비교



자료: 서울시 공동주택의 정비 유형 선택 모형에 따른 유형별 수요와 공간적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류인정·남진, 2017), 국토계획 52(6)



동의 없는 녹음, 어디까지 허용될까?



글 _ 박현진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변호사
hyunjin.park@miraeeasset.com

법률 분쟁에서 증거로 자주 사용되는 녹음 파일은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임에 틀림없지만, 그 녹음의 경위에 따라 되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률 분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증거는 무엇일까? 계약서나 각서 등 서면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게 사용되는 증거는 바로 녹음 파일이다. 분쟁 당사자나 증인 등 제3자의 목소리를 통해 그 진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녹음은 매우 중요한 증거로 다루어지곤 한다. 그런데 증거로 활용되는 대부분의 녹음 파일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이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후 녹음한다면 결정적 증거를 얻기 힘들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동의 없는 녹음은 무한정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은 금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 민형사 양쪽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형사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생각보다 중한 범죄로 다루어진다. 이같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음으로 판단되면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등의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합법인 녹음과 불법인 녹음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 아래 A씨와 B씨의 두 사례를 살펴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가 인정된 사례

A씨는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고심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켜 채 집 안에 숨겨놓고 외출했다. 그사이 아내가 불륜 상대와 통화하는 내용이 녹음되었고, 이 같은 녹음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A씨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이 아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런데 그 같은 녹음이 불법임을 이유로 아내는 A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자신의 집에 스마트폰을 숨겨 불륜의 증거를 녹음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자칫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A씨는 본인이 대화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다른 두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

호법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결국 A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한편 택시 운전기사 B씨는 택시에 승차한 승객과의 대화를 인터넷 방송을 통해 다수에게 공개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2명의 승객이 이 사실을 모른 채 택시 운전기사와 함께 사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가 뒤늦게 이를 알게 되었고, 이에 승객은 방송 중단을 요구하고 택시 운전기사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B씨의 인터넷 방송 중계는 동의 없이 촬영하고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개되었으므로 불법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B씨는 승객과의 대화에서 직접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이를 두고 ‘타인간 대화로 보기 힘들다. 결국 대법원은 B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민사상 초상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가능성은 열어두었음).

‘녹음 당사자가 대화 참여자’인지 여부가 판단 척도

위 두 사례를 살펴보면 동의 없는 녹음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녹음하는 사람이 대화 당사자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두 사람 간의 대화뿐 아니라 3명 이상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도 그 대화 참여자 중 한 사람이 녹음했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 대화’가 아니므로 불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만약 A씨가 아내와 아내의 불륜 상대를 만난 자리에서 불륜을 인정하는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그것은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한 것이어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반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한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이때 대화 당사자 일부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모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이상 마찬가지다. 범죄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거나 민사상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결론에는 변함이 없어 주의를 요한다. ■

특별한 동행,
'2018 미래에셋대우 명예지점장 위촉식' 개최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3월 대전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총 5개 지역에서 '2018 미래에셋대우 명예지점장 위촉식'을 개최했다. 2010년을 시작으로 올해 9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오피니언 리더이자 VIP 고객을 명예지점장으로 위촉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했다.

'특별한 동행'을 주제로 고객과 평생 동맹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에셋대우의 진심을 담아 준비한 이번 위촉식은 지역별로 총 5회로 나누어 진행해 더욱 의미가 깊었다. 또 함께한 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포토 스튜디오 촬영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다.

행사는 위촉식을 시작으로 강연과 만찬,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했다.

공연은 감미로운 재즈 트리오 '고희안 밴드'와 탱고의 매력을 카리스마 있게 발산하는 '김혜미&탱고과르텟'이 지역별로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명예지점장은 퀄리티 높은 공연에 큰 박수와 환호로 화답해 최고의 공연 관람 매너를 보여줘 공연 팀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명예지점장은 1년 간 유지되며 회사와 고객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WM의 성장을 위해 중요한 조연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미래에셋대우는 매년 명예지점장을 선정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퀄리티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고객이 원하는 것을 넘어 고객을 위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혁신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가정의 달 기념 오블리제 클럽 자유 작품 공모전 당선작 갤러리

Gallery

주제

사랑하는 우리 가족

당선을 축하합니다!

최우수작 IWC대전 권우근 고객

우수작 천안WM 김진수 고객
사하WM 서진승 고객
서울역WM 성순현 고객
여의도영업부 이영관 고객
디지털구로WM 정석훈 고객

● 사하WM 서진승 고객 작품은 표지와 첫 페이지에 실렸습니다.

- 최우수작 당선 고객께는 100만원 상당의 가족 외식 상품권을, 우수작 당선 고객께는 30만원 상당의 가족 외식 상품권을, 가작 당선 고객께는 네이버 인공지능 스피커 프렌즈를, 입선 당선 고객께는 CGV 모바일 영화 관람권 2매를 보내드립니다.
- 본 갤러리의 작품 중 일부는 수정·보완했음을 알립니다.
- 당선 고객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기재했습니다.

IWC대전 권우근 고객

눈물 속에 핀 행운목 꽃

새벽부터 주룩주룩 내리는 봄비 소리에 아침 일찍 잠이 깨어 오늘도 이렇게 행복한 아침을 맞이함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이 계절에 내리는 비를 녹우라 하여 봄비가 한차례 내리면 겨우내 얼어붙고 메말랐던 나뭇가지에 어김없이 연초록 잎이 돌아나고 화사한 봄꽃이 피어난다. 죽은 듯하던 자연의 생명이 되살아나는 신비로움을 나이가 들면서 새삼스레 느낀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9년 전에 종합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하고 회복해 석 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던 그 봄날이 생각난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그 봄날에도 오늘처럼 봄비가 내리고 연초록의 생명 빛이 온누리를 물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그해 겨울은 오랜 기간 동안의 해외 파견을 마치고 귀국해 쌓였던 업무 처리와 이런저런 잦은 모임으로 인해 나의 몸은 무척 지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린 듯하여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로부터 급성 간염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급히 대전의 집 근처 병원에 입원해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한번 망가진 몸은 회복될 줄을 몰랐다. 급기야 간성 혼수상태에 빠졌고, 의식을 잃은 나는 앰블런스에 실려 서울의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다. 담당 주치의는 2~3일 내에 간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고 했다.

놀란 아내는 급히 군 복무 중인 아들과 두 달 전에 결혼해 지금 막 신혼생활을 시작한 큰딸과 함께, 간이식 적합성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아내와 아들은 이식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다행히 큰딸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여성은 간 크기가 부족해 두 명으로부터 간을 기증받아야 한단다. 아내는 어쩔 수 없이 프랑스에 살고 있던 둘째 딸을 급히 불러들였다. 둘째 녀석은 토요일 오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시차 극복할 겨를도 없이 병원에 입원해 이식 적합성 검사를 받고, 큰딸과 함께 골든 타임의 마지막 날인 이튿날 일요일 새벽부터 수술받기로 했다.

남편과 사랑하는 두 딸을 수술대 위에 눕혀놓고 가슴 졸여야 했던 그날 밤의 아내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려온다. 그날 이후 아내는 지금까지 조그만 일에도 심장이 요동치는 불안 증상을 보이곤 한다.

수술은 새벽에 시작해 15시간이 지나서야 끝났다. 다행히 둘째 녀석의 간 크기가 적당해 큰딸은 수술을 면하게 되었다. 이미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던 나는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도 못했다.

수술 후 3일이 지난 뒤에야 누군가 꿈결에 “아빠, 아빠!!” 하고 부르는 소리와 “여보, 여보!!”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어렴풋이 의식을 회복했다. 눈을 떠보니 중환자실 침상에 온갖 호스를 꽂고 누워 있는 나를 발견했고, 침상의 조그마한 모니터에 나의 사랑하는 두 딸과 아내의

얼굴이 보였다. 아빠를 부르는 소리에 나는 대답도 못 하고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기쁨보다도 가족을 돌봐야 하는 가장이 자기 자신의 건강도 지키지 못해 가족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자괴감과 후회스러움의 눈물이었다. 딸이 어릴 적 놀다가 손가락만 다쳐도 그렇게 속상해했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큰 수술을 받아 커다란 흉터를 가슴에 남기게 된 게 너무 가슴 아팠다.

이후 나는 중환자실에 오래 더 머물다가 일반 병동으로 옮겨 회복 치료를 받았고, 그 기간 동안 내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회복과 재활을 도와준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다. 평소엔 마음이 약해서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었을 아내는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의외로 침착하고 내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다.

나한테 간을 이식해준 둘째 녀석은 수술 후 3주 만에 회복해 병실로 찾아와 “아빠, 괜찮아?” 하며 싱글거리며 나를 반겼다. 어릴 적부터 공부 잘하고 매사가 긍정적이며 쾌활한 녀석이었다. 제대로 해 준 것 없이 혼자 유학 가서 학교 졸업하고 파리에서 직장 생활하느라 15년째 해외 생활만 하던 녀석이 이제 이렇게 아빠의 생명을 구한 효녀가 되었다. 큰딸은 신혼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가슴 졸이고, 아빠 간호와 이런저런 뒷바라지에 정신없이 시간 보내느라 그 달콤한 허니문 기간을 망치게 해서 미안하고, 그동안 고생한 사위에게도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서울에서 회복 기간을 거쳐 석 달 만에 대전 집으로 내려왔다. 오랫동안 집을 비워둔 사이 베란다에 방치되어 있던 행운목이 다 말라 죽었으리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도착 후 며칠 만에 꽃이 피기 시작해 그 향기가 온 집 안을 진동케 했다. 평생에 한 번만 꽃을 피운다는 행운목이 이곳에 이사 온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도 몇 달간 물도 주지 못해 다 말라 죽어가던 나무에서 꽃을 피운 것이다. 그동안 아내와 가족의 사랑과 몰래 흘린 눈물 속에서 행운목 꽃이 핀 것이었다.

지금도 그 행운목은 싱싱하게 자라 우리 집 베란다를 지키고 있다. 행운목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롭던 둘째 녀석은 2년 전에 사랑하는 짝을 만나 브라질의 작은 휴양지 섬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울지 말자고 다짐했건만 손잡고 결혼식장에 입장하면서 나는 감동과 기쁨의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딸 바보가 되고 말았다. 이제 5월에는 사랑하는 온 가족이 다 모여 행운목 꽃보다 더 진한 사랑의 향기가 온 집 안을 진동케 할 것이다.





디지털구로WM 정석훈 고객

할아버지는 뜨거운 햇살에 손자 얼굴이 익을까 손으로 그림자를 만들어줍니다. 누군가가 가려주는 위치에서 누군가를 가려줘야 하는 위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사진이 깨닫게 해줍니다.

가정의 달, 귀한 추억 만드세요.

천안WM 김진수 고객 자녀

김하은 그림

‘사랑하는 우리 가족’

딸이 그린 사랑하는 우리 가족입니다. 네이버 인공지능 스피커 프렌즈를 꼭 갖고 싶다면서 동생과 함께 열심히 그렸답니다. 그림을 그리며 “절대 1등 하면 안 될 텐데”라며 걱정을 하네요~



여의도영업부 이영관 고객 손자 이하영 그림

‘벚꽃잎이 눈처럼 날리는 별이 가득한 밤 아빠가 근무하는 광화문에 놀러 가다’

최근 몇 년간 봄이 되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에 별이 잘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 눈에는 반짝거리는 별로 하늘이 가득 차 있고, 벚꽃잎은 눈처럼 아름답게 흩날리듯 보이니 좋습니다.

서울역WM 성순현 고객 손자

구민기 그림

‘꿈나라’



제목: 꿈나라

엄마 아빠 형아랑 같이 잠자는 시간이 좋아요.
별이 그려진 이불을 덮고,
가족들과 우주로 가는 꿈을 꾸요.



**포항WM 송재환 고객 자녀
송원석 그림**

공룡 타고 여행하고 싶다는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공룡 나라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한 여행을 떠나요.



목동중앙WM 박영순 고객 자녀 박인찬 그림
‘자전거 놀이’

요즘 자전거 타기 놀이에 푹 빠진 여덟살 인찬이는 할아버지가 사주신 바퀴
큰 자전거가 꽤나 마음에 드는지 슈퍼맨 같은 아빠와 함께 높은 산도
거뜰히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저녁 시간에 나간 다섯 식구의 시원한 자전거
라이딩을 그려보았습니다.



대치WM 김동단 고객 손녀 이하린 그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맑은 날씨에 병아리에게 먹이를 주고 함께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곡WM 김도형 고객 손녀 여은수 그림
‘행복한 우리 가족 나무’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서로 손을 잡고 있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 내 동생 은찬이, 나, 엄마, 아빠, 삼촌,
친할머니, 사촌 동생 유정이, 친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 가족 나무는
오늘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목동중앙WM 신상용 고객 자녀 양준희 글·그림
‘보이지 않는 무지개가 있어요’

저희 가족 얘기를 해드릴게요.

엄마 아빠가 우리 앞에서 처음으로 크게 싸운 날, 오빠와 나는 너무 슬펐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건 정말 정말 싫어요. 얼마나 싫으면 딱딱하고 익숙하지 않은 맛이 나는 땅콩과 아몬드, 토끼한테 주면 좋아할지도 모르는 상추와 깻잎, 가지와 당근 내가 좋아하는 예쁜 공주 드레스에 뭐가 묻었을 때, 그리고 시름시름 구리구리한 똥 냄새만큼 싫어요. 얼마나 싫은지 아시겠어요?

하지만 궂은날에도 맑은 날에도 우리 가족한테는 보이지 않는 무지개가 있어요. 숨어 있는 햇빛을 받아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무지개여도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우리 앞에서 서로 “미안해” 하고 사과하고, “사랑해” 하고 서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숨어 있던 무지개가 일곱 빛깔을 찬란하게 드러내준거예요. 정말 좋았어요. 언제 가도 재미있는 키즈 카페, 엄마가 사준 귀가 긴 토끼 인형, 어제 키를 잼을 때 100cm가 되었다고 엄마가 그랬을 때, 알록달록 달콤한 도넛만큼 좋았어요.

나랑 오빠는 알아요. 우리 가족 위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무지개가 숨어 있다는 걸요. 그래서 서로한테 빠치고, 사이가 조금 틀어질 때가 있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디지털구로WM 이동현 고객 자녀 이효원 그림
‘함께 돕는 사랑하는 가족’

아이의 눈높이에서 가족의 사랑이란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집 안 청소였나 봅니다. 물론 작은딸은 ‘대청소’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지만요. 기침을 자주 하는 아이들을 위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불을 터는 아빠, 많은 시간을 부엌에서 요리와 설거지로 보내는 엄마, 거실을 쓸고 있는 것은 평소 토닥토닥 싸우는 언니, 그리고 반짝반짝 윤나게 바닥을 닦고 있는 자기 모습을 예쁘게 그림에 담아놓았네요.

언뜻 보면 특별한 거 없는 작은 일상이지만, 가족이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작은 매일의 일상을 공유하고 도우면서 꾸려가는 존재라는 것, 그곳에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이 작은딸이 그린 식구들의 밝은 표정에서 느껴지네요.



IWC3 문지영 고객 자녀 조예원 그림

아빠는 늘 바쁘셔서 한 번도 롯데월드에 같이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함께 후름라이드 타는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소원을 빌면 아빠도 같이 탈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아빠에게 이 그림을 선물하고 꼭 함께 롯데월드에서 후름라이드를 타고 싶습니다.

WM강남파이낸스 이인철 고객 자녀
이예니 그림
‘체코&터키 가족 여행’

세 식구가 떠난 여행에 왼쪽에는 아빠, 가운데에는 자기, 오른쪽에는 엄마를 그렸는데 아빠의 공간에는 돌아가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같이 그렸네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조상님들까지 그렸어?” 그랬는데, 아빠는 엄마 아빠가 없어서 외로워 보였다는 아이 말이 가슴 아프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네요. 가운데 자기 공간에는 집에서 키우는 햄스터와 고양이 링고를 함께 그리고, 엄마 공간에는 증조할아버지 할머니에 조상들까지 그렸어요~ 이 무슨 심령사진 같은 그림인가 싶기도 하지만, 다행히 조상들 모두 웃고 계셔서 무섭지는 않아요~

무슨 자신감인지, 우리 아이가 꼭 보내달라고 해서 응모합니다.



일산중앙WM 손수원 고객 자녀 손지호 그림

매거진을 보고 초등학교 3학년인 제 딸이 직접 그림을 그려 응모를 하게 됐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캠핑카를 타고 캠프파이어와 꼬치구이 등 자연과 함께한 시간이 기억에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자연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우리 가족의 최고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이라 완성도는 떨어지겠지만, 추억을 되새기며 즐겁게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갤러리아WM 유민진 고객 손녀 서연재 글·그림 ‘행복한 우리 가족 이야기’

우리 집에는 항상 웃음이 넘쳐요.
저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요. 매일매일 친구들과 즐겁게 학교생활을 배우고 있어요.
아빠 엄마는 회사에 다니느라 바쁘시지만,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애교쟁이 막내 예진이는 가끔 내 말을 안 듣기는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동생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새롭게 우리 가족이 된 물고기를 소개할게요.
구피, 노랑이, 빨강이 총 10마리가 있었는데 며칠 전 아기 구피가 6마리 태어나서 총 16마리가 되었어요.
항상 따뜻하고 밝음이 넘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다.



울산WM 김정인 고객 자녀 김근혜 그림

“엄마, 나 여기 그림 응모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 선물 꼭꼭 받고 싶어!”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여덟 살 딸아이가 오블리제 클럽 공모전 포스터를 보며 한 말이다. 자기에겐 인공지능 스피커가 꼭 필요하다며 열심히 그림을 그린다.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했던 때를 떠올리며 그렸단다.
“잘 그렸지?” 하는 딸아이의 말에 잠시 침묵한 후, “그래 열심히 그리는 네 모습이 참 멋지구나” 하고 대답해주었다.
30대 후반에 결혼해 몇 번의 유산 끝에 진짜 어렵게 태어난 딸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니 감개무량하다. 딸아이는 구김살 없이 잘 자라고 있다.
우리 고령 부부의 활력소인 딸아이, 계속 건강하고 밝게 자라길!

갤러리아WM 김하나 고객 ‘내 동생’



WM강남파이낸스 변성호 고객 자녀 변재영 글

마지막 지폐

할머니가 날보고 집으로 가는 날
내 손에 만 원을 쥐여주셨다.

할머니의 손 주름처럼 구겨진 만 원
의미 있게 써야지 하고 지갑에 넣었다.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입원을 하셨다.

할머니가 주신 지폐가 마지막일까 봐
지갑에서 책상 서랍 속으로 지폐를 옮겼다.

할머니가 빨리 다시 나오셔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

할머니의 따뜻하고 지친 손을
다시 잡고 싶다.

할머니가 해주신 일품 갈비찜을
다시 먹었으면 좋겠다.

할머니랑 못다 한 이야기를
마저 나눴으면 좋겠다.

할머니가 주신 그 지폐가
마지막 지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근육암을 선고받고 투병하는
중에 중학생 아들이 쓴 시입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수술 후 열심히 치료하고
계십니다.

일산WM 김은선 고객 자녀 정서연 글

가족의 형태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의 유년 시절은 늘 엄마와
아빠의 갈등이었다. 그들은 경제적 문제나 성격의
차이로 매번 다투었고, 난 그 속에서 불안하게
자라왔다. 결국 그들은 결혼 생활을 끝맺음했고
각자 마음속의 짐을 버리고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힘든 생활이었던 만큼 이혼 후 그들은
서로의 나쁜 면 대신 좋은 면만을 기억하며 결혼
생활을 추억으로 남겼고, 난 그런 부모의 삶을
응원했다.

하지만 TV 같은 대중매체에선 아빠와 엄마
그리고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을 이상적 형태로
인식하는 것 같아서 나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내가 성장하며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그 획일화된 기준이 많은 이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가족은 모든 것이 갖춰져야만 작동하는 기계가
아니다. 수 억 명의 다른 사람들이 구성하는 가족
형태 또한 수억 개일 것이고, 누구도 그 형태에 대해
평가할 자격은 없다. 앞으로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갈 이들이 획일화된 기준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자라면서 겪은 가족에 관한 일과 생각을
수필로 작성했습니다.
저의 짧지만 진심이 담긴 글을 읽고 많은 이가
적어도 제가 받은 상처는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둔산WM 이미영 고객

가족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만나
서로의 뒷모습을 본다는 것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된다는 것
모래바람 속에서
꽃이 피듯
놀랍고 가슴 벅차노라.

어찌 이만한 기적이 있을까
천지가 도왔기에
신명이 살피주었기에
우주 속 한 점으로 떠돌던
너와 내가 만나
부모와 자식으로
만날 수 있었으리라.

이 별과
저 별 사이
그리움에 사무쳤기에
저 무한의 강을 건너
뒷모습만 봐도 좋은
달 같은
해 같은
가족이 되었으리라.

시를 쓰며 가족 생각을 사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고 살지
않았나 반성하는 시간이었고, 더 아끼고 챙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센텀시티WM 권순옥 고객 배우자 남호태 님 글

행복이 오는 길

폴꽃처럼 피어나는 어여쁜 마음
아내의 숨결마다 소록소록 피어오른 꽃송이는
행복 도시락 되어 조적조적 내게로 걸어왔다
옆구리에 달라붙은 천사의 꽃넋이
애뜻한 사랑의 향기 품은 눈부처 되어
자유새의 가슴에 아늑하게 둥지를 틀었다
도시락 속에 사랑꽃 한 떨기
꿈을 안고 걸어간다
아! 향기로운 숨결에 젖어
행복한 꽃뜨락에 간혀버린 사랑의 감옥
참생명 이어가는 내 여인의 저와 같은 삶이
참부처 되는 보살의 행^행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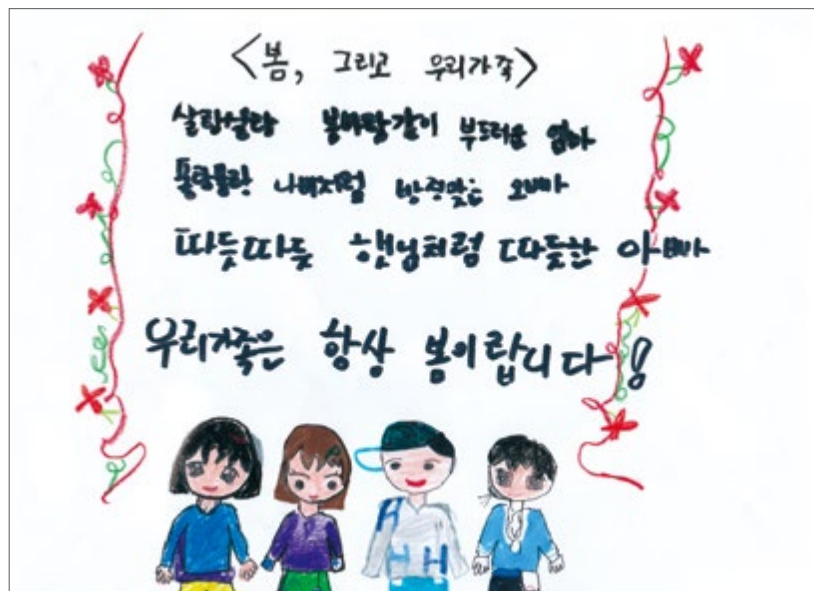
현직 경찰관인 나는 범인 검거차 출동한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8개월 동안 정형외과의 병상에
누워 다섯 번의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영구 지체 장애의 몸으로 수렁에 빠진 나를
위해 아내는 마비되고 뒤틀린 다리를 밤낮으로
마사지해주고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으며
9년여 동안 불평 한 번 없이 수발을 들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의 억울한 심정만 지닌 채 아내의
희생은 까맣게 잊고 살아왔다. 하루도 빠짐없이,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손수 싸서 출근길 어깨에
걸어주며 웃음을 잃지 않았던 꽃 같은 아내.
어느 날 문득 도시락 반찬 담은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은 바 있어 이 작품을 쓰고자 마음먹었다.
수척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혈압을 재고 있는
아내를 종종 발견한다.



서대구WM 신석교 고객 자녀 신지영 그림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학교 문제나 직장 문제 등으로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며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중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가족 간의 시간이 줄어들고 가족사진 찍을 기회가 줄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그런 아쉬운 부분을 생각하며 가족사진 중에서 각자 가장 행복했던 얼굴을 조합해서 가족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5월의 맑고 예쁜 하늘처럼 가족이 떨어져 지내더라도 늘 이렇게 웃으며 행복하게 함께하는 마음임을 이야기하며 응모하고자 합니다~

센터원영업부 정종경 고객 자녀 정우빈 그림
'캠핑으로 즐거운 우리 가족'영통WM 한학승 고객 자녀
한다현 그림
'봄, 그리고 우리 가족'

강남센터WM 원상희 고객 손자 정건웅 그림

아빠 공부 관계로 2년 동안 미국에서 지낸 손자의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담아 즐거웠던 때를 생각하며 그렸습니다. 식구들이 좋아하는 색깔과 모양을 잘 관찰했다가 그림에 표현했네요.

이제 얼마 있으면 볼 수 있다는 마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그림을 그리고, 공모전에도 참가했습니다.



IWC3 김채미 고객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눈망울을 지닌 송아지를 처음 알게 된 건 초등학교 시절이었어요.

지금의 주말농장 같은 시골에서 자랐는데, 아직도 그곳에서 태어났던 송아지의 눈망울이 기억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따뜻한 사랑의 눈길로 우리 가족뿐 아니라 모든 가족이 따뜻하게 포근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WM센터원 강재열 고객 손녀
강윤아 그림
'일본에 있는 우리 가족'

IWC1 정윤숙 고객 아버지 정원세 님 글

과수원의 봄소식

개나리 산수유 재잘거리고
벚꽃은 입을 벌린다.

자두는 하얀 소식을 알리고
백일홍은 아직 떨었다 한다.

체리나무는 기지개를 켜고
매화는 향기를 날린다.

복숭아는 복이 많다 하고
푸른 소나무는 건강하나 한다.

살구나무는 손을 흔들고
사과나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이네 한다.

마늘과 양파는 서로 다투고
석류는 말이 없구나.

개울물은 아장아장 흘러오고
개구리는 눈을 깜빡거리다.

명당에 앉아 있는 저 늙은이는
갑자기 무릎을 탁 치더니,
그만 말이 없네.

올해 73세이신 친정아버지가 48세 된 막내딸인
저에게 지리산 과수원의 봄소식을 전해오셨는데,
읽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청년 시절엔 책을 무척 좋아하시고 글도
많이 쓰셨는데, 여섯 식구의 가장으로 열심히 사시느라
글쓰기는 잊고 사셨지요. 그러다 은퇴 후 노년에
산골에서 작은 과수원을 가꾸시며 좋아하는 책도
마음껏 보며 지내시는 모습에 마음이 뭉클해지더군요.

IWC대전 박춘호 고객

당신을 찾아오신 불청객을
마중하며

당신이 고향곳지 않으신 웬 임과 인연을
맺었다기에
별뉘 가려진 우성이 산 구르며 애간장을
흘뻐렸습니다.
잠시 헤어짐도 싫은데 영영 이별은 아니 된다고.

반백 년 사연들, 아이들과 제가 헤집어놓은
아우성들이
당신 한쪽 가슴에 빈집 지으며 살아왔다 하네요.

예전 당신 이름은 소녀였고 여자였으나
제 삶의 울타리에 걸려 예쁜 꾸밈 입지 못하였죠.
지금은 아내이자 엄마인 까닭에 그저 곁을
서성이다

남은 저쪽 가슴마저 내놓겠다기에
곱디곱게 비구니 된 온몸을 부둥켜안았습니다.
모든 게 제가 당신 남편 된 탓인 게지요.
펴놓은 이부자리에 당신, 저, 그리고
베개 없이 당신 찾아오신 손님, 셋이서
손을 포개고 번갈아 뒤척이며 눈치만 봅니다.
그리 살가운 내일 하루 오시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 조금조금 구시렁대며 등을 맞댑시다.

저는 당신이 머금을 그리움으로 늙어가고 싶기에
그 손님 정들기 전 제게 모셔 오려 합니다.

약2년 반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점차 회복해가는
아내를 응원하며 평소에 담아두었으나 표현하지
못한 내 마음을 한 편의 시로 전하고 싶습니다.

수지 WM 박명규 고객

그렇그렇 걱정쟁이 서연이

말수 적은 외손녀가
어느 날 느닷없이
엄마 엄마아~
응, 왜 그래
그런데 있잖아, 나 나중에 외할아버지와 결혼할래
진짜야?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아?

어미 아비 얼굴 보기 힘든 서연인 틈만 나면
부리나케 할비 찾아 숨바꼭질도 하고
그네 타기 미끄럼 타기로 신이 난다
돌아오는 길 마트에 들러
제집에선 구경도 못 하는 비비빅 하나 물려주면
강아지처럼 짹짹 뛰면서 엄지손 치켜올리고
연신 힐끔힐끔 돌아보며 제집으로 달아난다

사뭇 심각해진 저녁
다섯 살배기 서연이는
그런데, 엄마 엄마아~
응, 또 왜?
나중에 있잖아, 나중에 내 결혼할 그때에
할아버지 다 늙어버리면 나 어떡해 엄마,
쳐다보는 눈망울엔 수심이 그렇그렇 매달렸다
괜찮아아~ 서연아, 할아버진 아주아주 건강해서
그때도 팔팔하실 거야. 걱정 마.

대치WM 정봉옥 고객

가족이란 이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너무나 깊게 사랑하기에
때론 가장 멀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 깊고 깊은 사랑 때문에
상처 또한 쉽게 받기도 하지만
아주 쉽게 용서할수 있는 사이지요
이 세상에 내가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커다란 사랑의 선물은 바로 가족입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도
남들이 모두 등을 돌릴 때에도
믿어주고 응원하며 내 편이 되어주지요
비에 젖고 바람에 흔들려 휘청일 때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보듬어주며
희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지요
이 세상에 내가 받은 선물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바로 가족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이유 없이 쉬고 싶을 때
아기가 달려가 포근하게 안기는 엄마 품처럼
언제나 넉넉하고 편안한 안식처이지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끈끈한 정으로 이어진 사이지요
이 세상에 내가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가족입니다.

서면WM 김미숙 고객 자녀 서승희 글

외할아버지 사랑해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 아기였을 때부터 다섯 살 무렵까지 외가에서 지내고 엄마가 퇴근하면서 집으로 데려오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어린 나는 시계도 볼 줄 모르면서 엄마의 퇴근 시간을 어떻게 알아챘는지 집에 갈 준비를 하며 대문가를 기웃거리더라고 외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기억이 난다.

외가는 우리 집에서 약 4km 쯤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그 집은 외할아버지께서 원래 다 낡은 집을 터만 보고 사서 몇 년 지나 손수 새로 지은 집이라고 했다. 외할아버지는 셋방에서 어린 자식들이 남의 눈치 봐가며 지내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어려운 형편에도 허름한 집을 사고 마당에 꽃도 심고 햇빛도 보며 자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하셨다. 옛날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한참을 걸어 들어가 골목골목을 지나야 나오는 집이었고, 공터나 우물이 있는 집들이 있을 만큼 변두리로 여기던 동네였다고 한다. 지금은 그 집을 팔고 시골 고향 집으로 내려가서 두 분이 지내시는데, 얼마 전 우연히 그 동네를 지나다 보니까 외할아버지께서 지은 그 집엔 아직도 외할아버지 이름의 문패가 그대로 박혀 있었다. 나는 그 문패를 보면서 잠시 외할아버지 생각을 했다.

올해 여든이 되신 외할아버지의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씨름 선수로 활약하실 만큼 건장하고 우람한 몸집이었는데 “세월 앞에는 장사 없다”는 말처럼 가끔 외할아버지를 뵈 때면 내가 어린 시절 외가에 있을 때의 그분이 맞나 싶을 만큼 많이 쇠약해지셨다. 거기다 초기 치매도 와서 최근의 일을 기억 못 하시거나 방금 한 말을 또 하시는 모습을 볼 땐 마음이 참 아프다. 엄마가 직장에 있는 동안 외할아버지는 어린 손녀에게 엄마의 부재를 잊게 해주려고 애쓰셨다. 어린 시절을 사랑 가득한 시간으로 채워주려고 나를 데리고 동네 곳곳을 혹은 부산 시내를 여기저기 돌아다니셨다. 차 안에서 ‘뽀뽀뽀’ 노래를 켜놓고 신나게 불러주시고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에 데려가거나 가까운 학교 운동장에 가서 시소며 그네를 타기도 하고, 언니 오빠들이 체육 수업을 하는 걸 함께 구경하기도 했다. 하다못해 개미가 줄지어 가는 모습을 함께 들여다보며 개미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상상력을 키워주시고, 나비나 잠자리를 잡아 보여주시기도 하며 엄마가 오기까지 하루하루 시간의 흐름을 잊게 해주셨다. 아마도 어린 나를 보며 오래전 엄마를 키우시던 그때를 떠올렸으리라. 낮에 어린 나와 함께 했던 일들을 퇴근해 돌아오신 엄마에게 들려주시는 것도 즐거워하셨다.

외할아버지는 성품이 온화하셔서 화를 내는 적이 드물었고, 말씀도 별로 없었으며, 필요할 경우엔 다른 사람과 함께 들기도 했지만 술도 그다지 즐기는 편은 아니셨다.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셔서 젊어서 공무원으로 계실 때 모범 공무원상도 두 번이나 수상하셔서 오래된 상패가 아직 외가에 있다. 그 시절에는 공무원이 박봉이어서 4형제를 키우기가 벽차 일반 기업의 회사원 생활이 경제적으로 좀 더 낫겠다 판단하신 외할아버지는 공직을 버리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공무원이 되려는 공시족이 저렇게 많은 걸 보면 시대가 참 많이 변하긴 했나 보다. 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가 호기로운 남자가 못 되어 큰 사업이나 장사 같은 걸 할 엄두도 못 내고 그래서 큰돈 만저본 일도 없이 딱 먹고살 만큼만 가져오는 월급봉투에만 기대어 살다 보니 고생 고생하며 살았다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딸 둘, 아들 둘의 엄마 형제는 성실한 외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운 덕에 열심히 공부하고 모범적으로 자라 다들 좋은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걸 보면 외할아버지의 삶도 성공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외할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증조할머니(어머니의 할머니)에게 치매가 와서 증조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시골로 가셨다. 가끔씩 외할아버지를 뵈러 시골에 내려가면 치매 걸린 어머니를 돌보는 외할아버지가 너무나 고생하셔서 마음이 안타까웠다. 요즘은 아무리 제 부모라도 그 누구도 그렇게 모실 수는 없을 것이다. 7~8년간 증조할머니 수발로 힘들었을 텐데도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를 때 외할아버지가 오열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그렇게 했는데도 못다 한 효가 남아 있었던 것일까? 외할아버지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꽃 같은 젊은 시절도, 불같이 사랑하던 시절도 있었을 것이다. 어쩌다 먼 곳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그 시절을 그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 추억과 아름다운 기억마저 점점 잃어가시는 외할아버지가 너무나 안타깝다. 내가 어떻게 해드려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갚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더 자주 찾아뵙고 아무 이야기라도 조잘거리며 들려드리면서 조금이나마 함께하며 적적한 시간을 줄여드려야겠다. 어릴 적 엄마를 기다리면서 엄마가 올 때까지 그 긴 시간을 잊게 해준 것처럼...



마포WM 이동규 고객 자녀 이승호 그림

작년 온 가족이 함께 눈사람 만들 때가 가장 행복했다며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가장자리는 액자처럼 멋지게 색도 칠했어요. 컬러풀한 눈사람 멋지죠? ^^

테헤란밸리WM 배유민 고객 자녀 반예준 그림
‘아빠 엄마와 함께한 벚꽃길’



방이역WM 송숙경 고객 손녀 이도담 그림

사랑하는 우리 손녀의 그림입니다. 해가 찡찡 비치는 날에 손녀, 할머니, 엄마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네요. 꽃과 구름도 동심동심 기분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요즘 공주를 좋아해서 엄마, 할머니 모두 긴 머리에 큰 리본을 하고 치마를 입고 있어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손녀와 가족 모두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녀가 가리는 것 없이 너무 잘 먹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튼튼하고 어여쁜 숙녀로 자라길 바랍니다.



2018 미래에셋 희망 듬뿍 독서교육 워크숍

‘희망 듬뿍 독서교육 워크숍’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복지사에게 독서 교육 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강의와 체험을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이 책을 가깝게 느끼고 좋은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지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파주 출판도시에서 사회복지시설 복지사 50여 명과 함께 독서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진행 가능한 헌 책을 활용해 팝업북 만들기, 책 놀이, 독서 토론방법, 책과 연계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출판도시 탐방, 오침제본 노트 만들기, 클래식과 함께하는 북 콘서트 등의 체험으로 구성되었다. 또 참가자들이 워크숍에서 습득한 활동을 각 기관에 돌아가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했다.

기관의 아이들에게 즐거운 독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공통의 바람으로 모인 참가자들은 프로그램마다 열의를 갖고 참여했으며, 쉬는 시간 틈틈이 독서 교육에 대한 고민과 아이디어, 우수 사례들을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참가자들은 앞으로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활동을 구상하며 워크숍을 마쳤다. 아이들이 책의 가치를 알고 책과의 만남을 즐거워하도록 지도하는 데 워크숍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한다.



고객님의 소중한 작품을 오블리제 클럽으로 보내주세요

EVENT

자유 작품 공모전

‘한여름의 추억’

그림, 사진, 에세이 등 자유 작품을 이메일을 통해 보내주세요.
작품을 보내주신 고객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응모 대상 미래에셋대우 고객이라면 누구나

응모 기간 2018년 5월 30일(수)~6월 22일(금)

* 응모 기간 내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응모 주제 한여름의 추억(그림, 사진, 시, 에세이 등 자유 작품)

* 1인 1작품 응모를 원칙으로 하며, 다작 응모 시 1작품만 임의 선정해 심사합니다.

당선 선물 - 우수작 : 국민관광상품권 10만 원권(10명)

- 가작 : 더바디샵 페퍼민트 페디케어 세트(10명)

응모 방법 ① 응모 사연과 작품 파일을 obligeclub@miraeasset.com으로 이메일 발송

② 이메일 발송 시 고객명, 연락처, 당사 거래 계좌번호 기재 필수!

* 상기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시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당선 발표 2018년 6월 28일(목) 예정

* 당선 고객에 한해 이메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당선작 및 고객명은 다음 호 <오블리제 클럽>에 게재합니다.

문의 사항 미래에셋대우 고객센터(1588-6800)



국민관광상품권 10만 원권



더바디샵 페퍼민트 페디케어 세트

프랑켄슈타인

오블리제 클럽 매거진을 보고 공연 관람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뮤지컬 관람 신청 사연을 간단히 문자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10분께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관람 기회를 드립니다.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관람 일시 2018년 7월 5일(목) 오후 8시

공연 장소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구.삼성전자홀)

출연진 류정한, 전동석, 민우혁, 박은태, 한지상, 카이, 박민성, 서지영, 박혜나, 안시하, 이지혜, 이희정, 김대중, 이정수, 심건우, 손대희, 서로사

러닝타임 3시간

공연 소개 <프랑켄슈타인>은 200년 전에 출간된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강렬한 스토리와 음악, 무대가 어우러진 한국 창작 뮤지컬로 초연과 재연에서 흥행 신화를 쓴 대작이다.

공연 문의 1544-1555

응모 대상 미래에셋대우 고객이라면 누구나

응모 기간 2018년 5월 30일(수)~6월 18일(월)

* 응모 기간 내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당첨 선물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관람권(10명, 1인 2매)

* 만 13세 이상 관람가

응모 방법 ① 휴대폰 문자로

‘신청 고객명’과 ‘간단한 응모 사연’ 입력(30자 이내)

* 띄어쓰기 포함 40자 초과 시 시스템상 접수되지 않습니다.

② 013-3366-2244로

문자메시지(SMS)를 전송하면 응모 완료!

* 별도의 정보 이용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관람권의 환불은 불가하므로

상기 관람 일시에 참석 가능하신 분만 응모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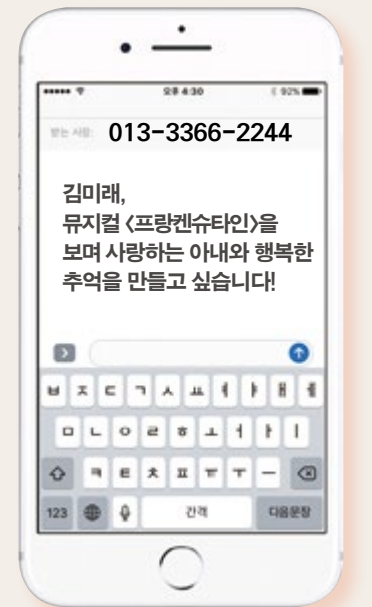
당첨 발표 2018년 6월 22일(금) 예정

* 당첨 고객에 한해 문자메시지(MMS)로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 미래에셋대우 고객센터(1588-6800)

유의 사항

- 뮤지컬 관람권 이벤트 응모 시 전송된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가 당사의 고객 정보와 상이할 경우 추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당첨 발표일 및 경품은 당사 또는 제작사 측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타 동등한 경품 등으로 대체해 제공합니다.
- 고객님의 제공하신 개인 정보는 본 이벤트의 응모, 경품 제공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동 목적 이행 완료 시까지 이용·보관됩니다.
- 상기 관람 일시 및 출연진은 제작사 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18-530호 (2018.05.16 ~ 2018.08.31)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미래에셋대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미래에셋대우 고객센터 (1588-6800)

MIRAE ASSET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자산 배분 모델 포트폴리오



MAY-JUN 2018

GLOBAL ASSET ALLOCATION MODEL PORTFOLIOS

국내 임금 상승, 국제 유가 상승, 미국 물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한 요인이 국내외에서 부각하고 있다. 신흥국 채권 비중 축소, 인플레 친화 섹터 비중 분산 등의 전략이 필요한 때다.

인플레 기대 국면 자산 배분 대응



글 _ 이재훈 미래에셋대우 고객글로벌투자전략팀장
jaehun.lee@miraeasset.com

인플레이션의 재등장에 민감한 금융시장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이슈로 재부각하고 있다. 지난 2월에 겪은 인플레 우려가 일시적 임금 상승에 놀란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데 기인한다면, 지금은 보다 경기 여건을 반영한 진성 인플레의 성격을 조금씩 보이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국제 유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고, 미국 근원 물가가 2%에 달하며 달러마저 가파르게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6월 FOMC를 앞둔 경계감이 대개 5월 중 선반영되는 경향을 감안할 때 주식과 채권 시장의 대응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채권의 포트폴리오 헤징 기능 저하, 캐리 수익 아니라면 국채 보유 실익은 낮아

우선 채권 보유 문제다. 채권은 주가와 반대로 움직여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잡아줘야 하는데, 연초부터 금리가 널뛰면서 헤징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해 비중을 상당 부분 줄여놓고 있다. 다행히 미국채 10년 금리가 2014년 초 찍어둔 3.04%에서 일단은 막히는 양상인데, 3% 선이면 최근의 인플레 기대 심리 상승과 연준의 총 4회 금리 인상이 상당부분 반영된 레벨로 인식할 수 있다. 당장은 3%에서 국채를 추가로 매도해봐야 큰 실익이 없다는 의미지만, 2분기 경기 모멘텀이 유가 상승과 함께 다시 가속화하면 3%대 안착 시도가 또다시 나올 수도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국채가 헤징 기능을 못한다면 일정



시점에서는 정리하고 회사채로 캐리 수익^{*1}을 추구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특히 로컬 통화로 표시된 신흥국 채권의 경우 환차손까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달러 상승이 더 강해진다면 우선적으로 비중 축소를 고민할 수 있다.

주식 모멘텀이 제한된 시기, 인플레 친화 섹터 비중 분산 또는 축소 고려

주식시장과 인플레가 워낙 동떨어져 있던 터라 시장은 여전히 금리 상승에 경계감을 갖고 있다. 다행히 규제 우려가 높았던 아마존 등 기술주들의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거두었다. 시장センチ먼트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 펀더멘털로 주요 지지선을 지켜낸 것은 긍정적이다. 달러가 더 강해진다면 이는

미국의 건축 기조와 맞물려 글로벌 유동성에 부정적일 수 있다. 이 경우 글로벌 주식 비중 자체를 조금 더 줄이거나, 비중은 유지하면서 이머징·미국을 줄이는 대신 유럽·일본·중국을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은 본토 주식의 MSCI China 추가 편입이라는 단발성 수급상 호재가 있고, 일본은 어닝전망이 괜찮은 반면 비싸지 않아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IT 실적 모멘텀이 기저 효과 등의 이유로 하반기 이후 점차 둔화할 거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일부 시클릭 섹터^{*2}로 비중을 분산하는 것도 합리적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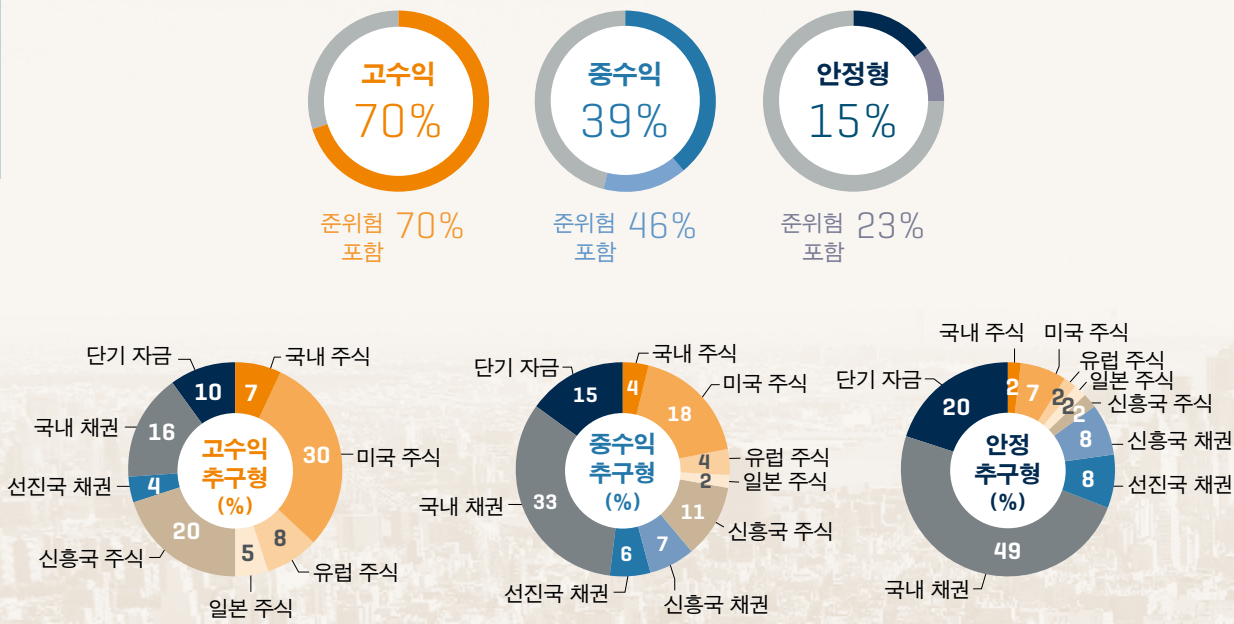
^{*1} 만기 보유 시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
^{*2} 경제순환과 같은 흐름을 이어가는 종목.

글로벌 자산 배분 MP / 연금 자산 배분 MP

※ 위험 자산 : 주식, 원자재, 글로벌 리츠, 하이일드 채권, 신흥국 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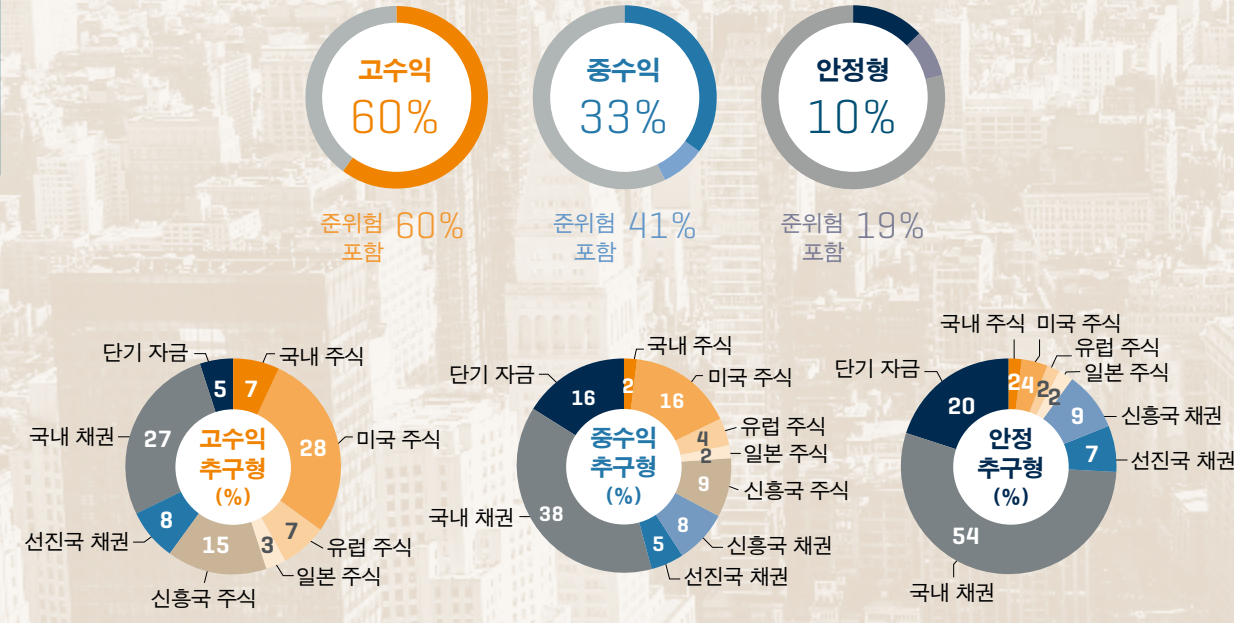
글로벌 자산 배분 MP

위험 자산 비중



연금 자산 배분 MP

위험 자산 비중



추천 상품 / 연금 추천 상품

시장 변동성 확대
목표 수익 추구형
상품 추천

최근 글로벌 경기 확장세가 주춤하고 미국 금리가 재차 상승하면서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는 투자 환경을 감안해 시장 변동성에 견딜 수 있는 목표 수익 추구형 상품을 추천. 향후에도 시장 변동에 대응 가능한 중수익 추구형 상품군 라인업을 확대. 주식형 상품군 추천은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

- 1 글로벌 주식: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미래에셋G2이노베이터펀드와 로보틱스 산업에 투자하는 교보약사로보테크펀드 추천. 최근 IT 기업 추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익 성장성 및 글로벌 자금 유입이 IT 섹터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음. 지역별 우수 펀드에 분산투자하는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펀드도 최근 글로벌 분산투자 펀드 비중을 높이면서 시장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
- 2 국내 주식: 당분간 정부의 혁신 기업 육성 정책 등으로 인해 중소형주의 강세를 전망. 최근 코스닥벤처펀드 자금 유입 증가로 인해 이와 관련된 중소형주도 수혜가 있을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중소형 성장주에 주로 투자하는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펀드 추천 유지. 투자 매력도가 높은 종목 중에서 배당 성향이 우수한 종목에 투자하는 KB액티브배당펀드도 균형 잡힌 투자를 위해 추천 유지.
- 3 신흥국 주식: 전체 이머징 시장을 대상으로 투자, 아시아 비중이 높은 미래에셋이머징마켓리더펀드 추천 유지. 최근 이머징 시장 조정 폭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기업이익 개선 속에서 글로벌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천 유지. 중국 투자는 ADR(알리바바 등)/중국 본토/홍콩 시장에 모두 투자하는 AI 차이나 컨셉 투자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자문하는 BS 차이나자문형랩(AI 차이나)추천 유지.
- 4 대체 투자: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목표 수익 추구형 펀드 니즈가 증가. 이에 따라 슈로더글로벌타겟리턴펀드를 신규 추천. 연초 이후 주식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과를 기록. 미래에셋스마트헤지펀드셀렉션펀드 역시 꾸준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어 추천 유지. 동 펀드의 경우 환매 수수료 부과 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4월 26일부터 적용)되어 투자 매력도가 향상.
- 5 연금: 연금 전용 추천 상품은 장기 투자에 적합하도록 장기 시황 전망과 상품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미래에셋자산배분/전략배분TDF는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 자산 비중을 조정해 주기 때문에 연금 계좌 내에서 유리한 구조의 상품으로 추천 유지. 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펀드의 경우 연초 이후 하락 폭이 컸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다는 판단하에 장기적 관점에서 추천 유지.

추천 상품

자산군	상품명
해외 주식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펀드(주식)
	미래에셋이머징마켓리더펀드(주식)
	미래에셋G2이노베이터펀드(주식)
	교보약사로보테크펀드(주식)
	피델리티글로벌금융주펀드(주식)
	Best Selection 차이나랩(AI 차이나)
국내 주식	KB액티브배당펀드(주식)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펀드(주식)
대체 투자	미래에셋스마트헤지펀드셀렉션펀드(사모투자재간접)
	슈로더글로벌타겟리턴펀드(주식혼합) 신규

연금 추천 상품

구분	상품명
안정 수익 추구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연금저축펀드(주식혼합)
	미래에셋자산배분/전략배분TDF시리즈
	블랙록글로벌자산배분펀드(주식혼합)
추가 수익 추구	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펀드(주식)
	피델리티글로벌테크노로지펀드(주식)

상품 개요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투자위험등급** : 2등급(고위험) • **환매방법** : 제5(6)영업일 기준으로 제9(10)영업일에 대금지급[()17시 경과 후] • **선취 판매수수료** - 종류A : 1.0% 이내 • **환매수수료** : 종류A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총보수** - 종류A : 연 1.05%(운용 연 0.40%, 판매 연 0.60%, 신탁 연 0.03%, 사무수탁 연 0.02%) • 총보수 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연 0.95% 추정) 등 추가비용 발생 • **상품 특징 및 추천 근거** : 다양한 해외주식형 펀드(ETF 포함)에 재간접으로 투자하며, 시장 환경에 따라 적극적 배분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 추구

미래에셋이머징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 **투자위험등급** : 2등급(고위험) • **환매방법** : 제4(5)영업일 기준으로 제9(10)영업일에 대금지급[()17시 경과 후] • **선취 판매수수료** - 종류A : 1.0% 이내 • **환매수수료** : 없음 • **총보수** - 종류A : 연 1.00%(운용 연 0.30%, 판매 연 0.65%, 신탁 연 0.03%, 사무수탁 연 0.02%) • 총보수 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연 2.07% 추정) 등 추가비용 발생 • **상품 특징 및 추천 근거** : 이머징 마켓을 대상으로 국가는 분산하되 주요 투자 테마에는 집중 투자하여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미래에셋G2이노베이터증권투자신탁(주식)

• **투자위험등급** : 2등급(고위험) • **환매방법** : 제4(5)영업일 기준으로 제8(9)영업일에 대금지급[()17시 경과 후] • **선취 판매수수료** - 종류A : 1.0% 이내 • **환매수수료** : 없음 • **총보수** - 종류A : 연 1.58%(운용 연 0.8%, 판매 연 0.7%, 신탁 연 0.05%, 사무수탁 연 0.03%) • **상품 특징 및 추천 근거** : 글로벌 성장의 수혜가 주요 글로벌 혁신 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글로벌 혁신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동 펀드의 투자 매력 높음

교보약사로보테크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

• **투자위험등급** : 2등급(고위험) • **환매방법** : 제4(5)영업일 기준으로 제9(10)영업일에 대금지급[()17시 경과 후] • **선취 판매수수료** - 종류A : 1.0% 이내 • **환매수수료** : 없음 • **총보수** - 종류A : 연 1.355%(운용 연 0.8%, 판매 연 0.5%, 신탁 연 0.04%, 사무수탁 연 0.015%) • **상품 특징 및 추천 근거** : 4차산업의 주요 테마로서 성장 잠재력이 높고 수익성이 가시화된 로보틱스 분야에 투자하여 장기적 자본 수익 추구

미래에셋스마트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투자신탁

(사모투자재간접형)

• **투자위험등급** : 1등급(초고위험) • **환매방법** : 1. 매월 10일~24일 이전 환매 청구 시 : 당월 24일(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로부터 제14영업일(매월 24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 시 제1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하여 제20영업일(매월 24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 시 제21영업일)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2. 매월 25

일~익월 9일 이전 환매 청구 시 : 익월 9일(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로부터 제14영업일(익월 9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 시 제15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하여 제20영업일(익월 9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 시 제21영업일)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선취판매수수료** - 종류A : 1.0% 이내 • **환매수수료** : 1년 미만 환매 시 : 환매금액의 1.0%, 1년 경과 후 환매시 : 없음 • **총보수** - 종류A : 연 0.95%(운용 연 0.4%, 판매 연 0.5%, 신탁 연 0.03%, 사무수탁 연 0.02%) • 총보수 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연 1.05% 추정) 등 추가비용 발생 • **상품 특징 및 추천 근거** : 다양한 전략의 국내외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추구

피델리티글로벌밸류증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

• **투자위험등급** : 3등급(고위험) • **환매방법** : 제3(4)영업일 기준으로 제8(9)영업일에 대금지급[() 17시 경과 후] • **선취판매수수료** - 종류A : 1.2% 이내 • **환매수수료** : 없음 • **총보수** - 종류A : 연 1.16%(운용 연 0.10%, 판매 연 1.0%, 신탁 연 0.035%, 사무수탁 연 0.025%) • 총보수 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연 1.1% 추정) 등 추가비용 발생 • **상품 특징 및 추천 근거** : 글로벌 금융 관련 다양한 기업에 분산투자하며, 선진국 금리 인상에 따라 수혜 기대

미래에셋대우 Best Selection 차이나 자문형 랩어카운트

(All 차이나)

• **투자위험등급** : 1등급(초고위험) • **투자일임수수료** : 일반형 연 2.4%(분기 0.6% 후취), 혼합형 연 1.2%(분기 0.3% 후취) + 성과 보수(투자자 개별 합의에 따름), 성과형 성과 보수 투자자 개별 합의에 따름 • **위탁매매수수료** : 국내 위탁매매수수료 없음. 단, 해외주식[ETF] 투자 시 매매에 따른 거래세 및 해당 상품의 약관·설명서에서 정한 보수, 환전수수료 및 현지 Broker fee 등 당사에 귀속되지 않는 세금 및 비용은 고객 별도 부담 • **상품 특징 및 추천 근거** : 중국 본토, 홍콩 리서치 네트워크를 갖춘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자문하며 신경제 성장주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 수익 추구

KB액티브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

• **투자위험등급** : 3등급(고위험) • **환매방법** : 제2(3)영업일 기준으로 제4(4)영업일에 대금지급[()15시 30분 경과 후] • **선취 판매수수료** - 종류A : 1.0% 이내 • **환매수수료** : 없음 • **총보수** - 종류A : 연 1.41%(운용 연 0.715%, 판매 연 0.65%, 신탁 연 0.03%, 사무수탁 연 0.015%) • **상품 특징 및 추천 근거** : 투자 매력도가 높은 종목 중에서 배당 성향이 우수한 종목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 추구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투자위험등급** : 2등급(고위험) • **환매방법** : 제2(3)영업일 기준으로 제4(4)영업일에 대금지급[()15시 30분 경과 후] • **선취**

판매수수료 - 종류A : 1.0% 이내 • **환매수수료** : 없음 • **총보수** - 종류A : 연 1.5%(운용 연 0.73%, 판매 연 0.70%, 신탁 연 0.04%, 사무수탁 연 0.03%) • **상품 특징 및 추천 근거** : 기술·특허 등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꾸준한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 추구

슈로더글로벌타겟리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투자위험등급** : 2등급(고위험) • **환매방법** : 제4(5)영업일 기준으로 제8(9)영업일에 대금지급[()17시 경과 후] • **선취 판매수수료** - 종류A : 1.0% 이내 • **환매수수료** : 없음 • **총보수** - 종류A : 연 1.36%(운용 연 0.70%, 판매 연 0.60%, 신탁 연 0.04%, 사무수탁 연 0.02%) • 총보수 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 등 추가비용 발생 가능 • **상품 특징 및 추천 근거** : 밸류에이션에 기반한 자산 배분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추구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연금저축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

(주식혼합)

• **투자위험등급** : 4등급(중위험) • **환매방법** : 제2(3)영업일 기준으로 제4(4)영업일에 대금지급[()15시 30분 경과 후] • **선취판매수수료** - 종류 C : 없음 • **환매수수료** - 종류C : 없음 • **총보수** - 종류C : 연 1.38%(운용 연 0.43%, 판매 연 0.90%, 신탁 연 0.03%, 사무수탁 연 0.02%) • **상품 특징 및 추천 근거** : 국내 고배당주에 주로 투자하면서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 배당과 옵션 프리미엄 수취를 통한 장기적인 인컴 수익 추구

블랙록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

• **투자위험등급** : 4등급(중위험) • **환매방법** : 제4(5)영업일 기준으로 제8(9)영업일에 대금지급[()17시 경과 후] • **선취판매수수료** - 종류A : 1.0% 이내 : 없음 • **환매수수료** : 없음 • **총보수** - 종류A : 연 1.375%(운용 연 0.55%, 판매 연 0.75%, 신탁 연 0.05%, 사무수탁 연 0.025%), 종류C-P : 연 1.225%(운용 연 0.55%, 판매 연 0.6%, 신탁 연 0.05%, 사무수탁 연 0.025%) • 총보수 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연 0.45% 추정) 등 추가비용 발생 • **상품 특징 및 추천 근거** : 글로벌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국가의 800여 종목에 분산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추구

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투자위험등급** : 2등급(고위험) • **환매방법** : 제4(5)영업일 기준으로 제8(9)영업일에 대금지급[() 17시 경과 후] • **선취 판매수수료** - 종류A : 1.0% 이내, 종류C-P : 없음 • **환매수수료** : 없음 • **총보수** - 종류A : 연 1.70%(운용 연 0.90%, 판매 연 0.72%, 신탁 연 0.05%, 사무수탁 연 0.03%), 종류C-P : 연 1.70%(운용 연 0.90%, 판매 연 0.72%, 신탁 연 0.05%, 사무수탁 연 0.03%) • **상품 특징 및 추천 근거** :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중·기 성장 기대감이 높은 인도 주식에 투자하며, 그중에서도 투자 매력도가 높은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투자위험등급** : 2등급(고위험) • **환매방법** : 제3(4)영업일 기준으로 제8(9)영업일에 대금지급[() 17시 경과 후]) • **선취 판매수수료** - 종류A : 1.0% 이내, PRS : 없음 • **환매수수료** : 없음 • **총보수** - 종류A : 연 0.865%(운용 연 0.10%, 판매 연 0.70%, 신탁 연 0.04%, 사무수탁 연 0.025%), 종류PRS: 연 0.765%(운용 연 0.10%, 판매 연 0.60%, 신탁 연 0.04%, 사무수탁 연 0.025%) • 총보수 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연 1.09% 추정) 등 추가비용 발생 • **상품 특징 및 추천 근거** : 혁신적 기술을 통해 상당한 성장성이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초과 수익을 추구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5년증권투자신탁C-P

(주식혼합-재간접형)

• **투자위험등급** : 2등급 • **환매방법** : 제4(5)영업일 기준으로 제8(9)영업일에 대금지급[() 17시 경과 후]) • **선취판매수수료** - 종류C-P : 없음 • **환매수수료** : 없음 • **총보수** - 종류C-P : 연 1.15%(운용 0.30%, 판매 0.80%, 신탁 연 0.03%, 사무수탁 연 0.02%). 최초 설정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 기준의 보수이며, 최초 설정일 이후 5년 단위로 신탁보수 등이 인하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참고 • 총보수 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연 0.17% 추정) 등 추가비용 발생 • **상품 특징 및 추천 근거** : TDF(Target Date Fund)는 은퇴 시점에 따라 위험 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상품으로 연금과 같은 장기 투자 상품에 적합한 구조임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년혼합자산투자신탁C-P

• **투자위험등급** : 2등급 • **환매방법** : 제5(6)영업일 기준으로 제9(10)영업일에 대금지급[() 17시 경과 후]) • **선취판매수수료** - 종류C-P : 없음 • **환매수수료** : 없음 • **총보수** - 종류C-P : 연 1.25%(운용 연 0.40%, 판매 연 0.80%, 신탁 연 0.03%, 사무수탁 연 0.02%). 최초 설정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 기준의 보수이며, 최초 설정일 이후 5년 단위로 신탁보수 등이 인하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참고 • 총보수 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연 0.24% 추정) 등 추가비용 발생 • **상품 특징 및 추천 근거** : TDF(Target Date Fund)는 은퇴 시점에 따라 위험 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상품으로 연금과 같은 장기 투자 상품에 적합한 구조임

※ TDF 시리즈는 은퇴 시점에 따라 2025~2045년까지 5년 단위로 5개 펀드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개별 펀드의 정보는 각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mpliance Note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미래에셋대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모델 포트폴리오는 매월 당사가 자산배분위원회에서 대내외 투자 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립합니다.
- 추천 상품은 시장 적합성과 상품성 등에 대해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통하여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금융 상품을 선정합니다.
 - 선정 기준 : 정량평가(기간 수익률, 표준편차 등), 정성평가(집합투자업자 운용 능력, 시장 상황, 지원 현황 등)
 - 선정 방법 : 자산배분위원회 개최를 통해 선정
 - 추천 상품은 정량 및 정성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미래에셋 내 투자 전문가들이 선정한, 향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품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공통)

- 당사는 금융 투자 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 투자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금융 투자 상품은 투자 결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외화 자산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 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거래 수수료는 다이렉트(은행 제휴) 계좌 온라인 0.014% 등입니다.
(매체별로 상이,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펀드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 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 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재간접형 펀드의 경우 해당 펀드가 투자하는 피투자 펀드의 보수, 수수료,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수·수수료 외에 증권 거래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랩

- 랩어카운트 계약 전에 투자 대상, 운용 내용, 투자 위험, 수수료 등에 관한 약관, 계약 권유 문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랩어카운트는 고객별로 운용 및 관리되는 투자 일임 계약입니다.
- 랩어카운트는 위탁 매매 수수료는 없으나 금융 투자 상품 매매 시 해당 상품의 약관, 설명서 등에서 정한 보수, 수수료 등의 비용 등은 고객님의 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 가입 기간 : 최소 5년 이상
- 납입 한도 : 연 1800만원
- 연금 수령 요건 : 가입 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후 매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 가능
- 연금저축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 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한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 분리과세)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